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며 부패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얻지 못하였노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호세아 14장 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57호 2011년 10월 29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 살 때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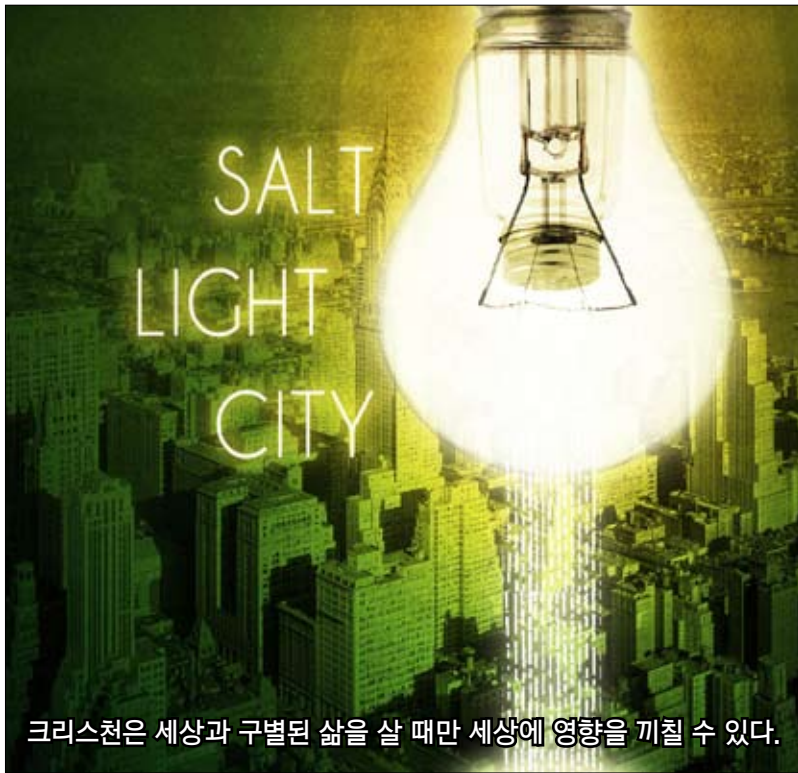
CT, 존 스토틀 목사의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가지 방법 소개

크리스천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팔복에 묘사된 크리스천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예시된 대로 그 행위와 말이 온전히 현신된 기독교적 제자도를 의미한다(눅 14:34-35; 골 4:6). 크리스천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한다.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크리스천들이 비 크리스천들에게 동화되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면, 그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크리스천이 사회 안에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한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비 크리스천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가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크리스천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얼마 전 소천한 존 스토틀(J. Stott)목사의 명 저서 《Four Ways Christians Can Influence the World: How we can be salt and light》를 소개하면서, 크리스천들의 영향력 회복에 대한 실제적이고 통찰력 있는 지혜를 전해준다.

비관론적 입장에서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은 성경적으론 역사적으로 곡해된 것이다.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어왔다. 케네스 라토렛이 저술한 '기독교 역사'의 결론에도 분명하게 기술돼 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영향을 주신 분은 없다. 그리고 그의 몸 된 지체인 교회공동체 역시 영향력 자체이다. 따라서 깨어있고 성경적 현실주의자로서 창조와 구속 그리고 회복을 통한 완성이라는 균형 잡힌 교리로 무장된 크리스천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즉 세상에서 단순하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달라진 삶을 살



크리스천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되고 달라진 삶을 통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1.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크리스천의 삶과 교회공동체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의무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만약 지역사회에 평화보다도 폭력이 더 많다면, 겸손보다도 무례가 가득하다면, 정의보다도 암재가 팽배하다면, 거룩함보다도 세속주의가 판을 친다면 교회는 기도를 계속

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라고 고백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중에 나누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구속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진리를 확신한다.

그러나 복음만이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탄의 어떠한 거짓보다도 강력하다. 바로 진리는 거짓보다도 힘이 있고, 하나님이 사탄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후 13:8)”라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꺾이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을 이야기 한다.

(3면으로 계속)

## 하나님과 공동체, 이웃의 리듬에 맞추라!

리더십저널, 스캇 보렌 목사의 교회 소그룹 운동을 위한 새로운 리듬 소개

넓은 공터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때, 공터의 한쪽 구석에서 큰 밴드가 연주를 하기 시작한다. 경쾌한 반주와 드럼의 소리, 관악기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시작한다. 서성이던 사람들은 리듬에 맞추어 발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술술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사역적인 소그룹(Missional Small Groups)”의 저자 스캇 보렌 목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말한다. 사람들의 몸을 흔들게 했던 그 음악과 리듬은 이 세상이 들려주는 사상과 이념이고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해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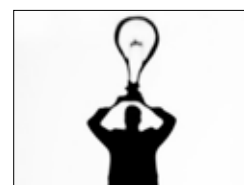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도 다른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심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움직임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보렌 목사는 사회에서 더욱 멋있게 어우러져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소그룹을 위해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3가지 리듬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보렌 목사는 사역적인 소그룹(Missional Small Group)이 되기 위해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와 박자를 잊어버리고 꼭 들어야 할 세 가지의 리듬에 대해 설명한다.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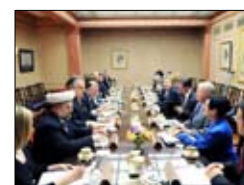


뉴욕 교협 제37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신규 임원들이 기념촬영했다. 오른쪽부터 손석원 이사장, 황규복 평신도 부회장, 김중훈 부회장, 양승훈 회장, 김원기 직전회장, 이종명 전 부회장, 현영갑 전 서기, 허윤준 전 총무 (기사 10면)



2면

창의적인 리더가 사람을 움직인다!



3면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최초 위!



7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II)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16면

인터뷰  
김호동 목사(불가리아 선교사)

# 김항안 목사 초청 2012 목회 계획세미나

●일 시: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00 - 오후 3시 ●장 소: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목사)

※접수비 무료, 당일 점심제공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Tel: 213-749-4500

3시간투자하시면 목사님의 목회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목회성공은 영성과 준비된 목회자의 몫입니다.  
왜? 한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일까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는 6월 5일 '목회자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6월 첫 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실시하고 목회자들의 영성회복과 목회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5,0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주최 | 한국교회정보센터 www.kcdc.net | 미주교회정보센터

신청문의: kcdc@choi.com / (213)268-2883



# 시론

## 우리가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한평생 물에 관한 연구만 해온 일본의 에도모 마사무라고 하는 교수가 쓴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각 나라의 각 지방 물을 연구하고 쓴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이 분이 물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물의 입자사진을 찍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다. 왜냐하면 물의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의 근본입자가 마치 꽃처럼 에메랄드 색으로 빛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현미경을 통해 찍은 그 사진들을 그 책에 수십 장을 수록해서 보여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을 앞에 놓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 그 마음의 파동이 전달되면서 물빛이 더욱 예뻐진다는 것이다. 물론 보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 색깔이 당장 빨간색으로, 까만색으로, 아주 흐트러진 무서운 색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 사진들을 모두 다 찍어서 보여주고 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얘기다. 물이 사람마음의 파동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자체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역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이다마는 어느 도시 안에 있는 호수의 물이 사람들이 잘못 관리함으로 해서 썩어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런데 그 호숫가에 커다란 야외음악당이 있어 언젠가 거기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와서 여러 시간 동안 좋은 음악을 연주했다.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음악을 들었다. 모두가 그 음악에 도취되었다. 이런 행사가 있고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호수의 물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물고기도 살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물을 마추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속상한 상태에서 젖은 아기에 먹이면 아기는 당장 설사를 한다. 물이 우리 마음의 파동을 받아들여 거기서 변화가 생기 때문이다. 파동은 다시 공명을 일으킨다. 공명은 다른 생명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창조력을 발휘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감사하며 즐겁게 일하는 곳에 기쁨이 있다. 교회에서도 일하고 불평만 하는 교인에게는 교회생활의 기쁨이 없다. 웃음이 없는 것은 일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 행복은 곧 기쁨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살전5:15-18)라고 하였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진정한 행복은 기쁨이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신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게 가장 잘 믿는 것이다. 또 가장 훌륭한 인격은 항상 기뻐하는 인격이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유명한 소설 '빙점(氷點)'을 쓴 여류작가이다. 그는 척추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으로 수십 년 고생을 했다. 파킨슨병으로, 직장암으로, 또 대상포진이라는 아픈 병으로 수년 동안 고생을 했고 심장병으로도 시달렸다. 특히 십삼 년 동안 폐병으로 고생했다. 병원에서 여러 해 살았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참으로 행복했다. 폐결핵을 앓는 중에 병원에서 남편을 만났다. 기뻐하는 중에 생각하기를 내 마음은 기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을까. 했다. 매일매일 소설을 썼다. 글을 써서 임원 중인 환자들에게 쪽 돌리면 모두들 한 번씩 읽어보고는 "아, 좋다. 그 다음은 뭐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한다. 그래서 매일 매일 글을 썼다.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빙점'이다. 그는 그 어려운 중에도 신앙 가운데 기뻐하며 행복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힘썼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보니 그 파동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파동이 공명을 일으키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기쁨과 행복은 파동을 일으키고 파급효과를 낸다. 그래서 공명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 기쁨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쁨 속에 물도 변한다. 자연도 변한다. 환경도 변한다. 세상이 변한다. 사람도 변한다.

# 창의적인 리더가 사람을 움직인다!

## 리더십저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신뢰하는 창의적인 리더의 본질 소개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이 창의적이다"라고 말하게 되는가? 보통은 뛰어난 인지적인 능력으로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전혀 다른 것을 결합 시킨다든지, 남다른 호기심과 재치 넘치는 유머가 있든지, 아니면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오랫동안 추구하는 경우에 우리는 "창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창의적인 삶에 대한 이미지는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문화적 특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무상한 변화를 무작정 쫓아가는 창의성을 흉내 낼 뿐, 본질과는 오히려 멀어질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신뢰하며 그 분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창의성의 본질을 찾아내고 그것을 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리더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창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런 본질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가?

첫째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성이다.

창의성의 본질은 이질적인 두 성향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외향성과 내향성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외향적이면서 동시에 내향적이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남을 웃겨야 하는 직업에 가진 코미디언들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다들 의외일 것이다. 하지만 남을 웃기기 위해서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이 잘 알아야 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에 더 민감하게 된다.

말하자면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발달시키느냐와 연관된다. 상상력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이 현실에서 사용가능한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수용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 겸손과 자존심, 놀이와 일 같은 대립되는 성격을 하나의 몸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상의 대립되는 요소를 수용하고 그 적절한 사용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사회주의자가 너무나도 우연찮게 만들었다. 레고 역시 어느 목수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 만들었던 "작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 창의적인 산물은 창조적인 안목이 없이 개발되지 않는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은 많고 그 개인이 만들어낸 탁월한 산물도 많다. 문제는 그 탁월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안목과 문화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

능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교가 막힘없이 흐르고 새롭게 조직화될 수 있는 창의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런 환경을 통해서 창조된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전문적 안목과 소신, 다름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창의성은 단순히 구성원 개인의

## 상반요소 결합력, 독창적이며 적절한 사고력 있어야 리더의 수용성과 창의적 안목이 원활한 시스템 필요

상대방을 웃기는 방법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감한 감정으로 웃기는 방법을 잘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향성을 바탕으로 발견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외향성 또한 필요한 것이다.

둘째,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독창적"이어야 하고, "적절"해야 한다.

우리가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야 하고, 이것들 중에서 무엇이 최고인지 평가하고 걸러내는 수렴적 사고도 필요하다.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은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연속이다. 이것은 자연히 상상력과 현실감각이라는 대립되는 두 요소를 얼마나 잘

넷째, 창의적인 리더는 "창의적인 산물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흔히 윈도우를 개발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윈도우는 복사기로 유명한 제록스 연구소(PARC)의 연구자들이 개발했다. 불행히도 제록스의 경영진은 이 획기적인 운영체제의 잠재성을 바라보는 눈이 부족했고 기껏해야 연구자들만 사용하는 용도로 활용될 뿐이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이 프로그램의 혁명적 가치를 알아보고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창의적인 산물로 만들었다.

나이지키의 상품에 붙은 로고도 초창기에는 고작 35달러짜리였다. 질레트 면도기 역시 처음에는 공상적

디어도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채택해주는 사람이나 조직, 문화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창의적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주체들이 구성원들에게 열정과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열정과 능력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열정과

문제가 아니다. 구성원들의 "상반되는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과 "독창적"이어야 하고 "적절"한 사고력, 리더의 "수용성"과 "창의적인 산물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원활히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속에서 창의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프)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프)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프)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 선교사 청빙

갈릴레아 선교 공동체는 과테말라 치색지역의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선교지 현장을 돌보실 선교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1. 자격

- 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구원과 말씀, 기도, 헌신하며, 영육간에 건강한 분
②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협력사역의 소명을 겸비한 분
③ 스페니시(Spanish)를 구사하실 수 있는 분
④ 선교 사역을 위한 신앙, 지도력, 인격, 전문성, 훈련과정, 건강, 가족사항, 재정문제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⑤ 최소 2년 이상 장기 사역이 가능한 분

### 2. 제출서류

- ① 이력서(가족사진, 졸업증명서 포함)
② 간증과 선교소명서
③ 선교기관 소속 증명서(선교기관에 소속되어 있을시 제출)
④ 담임목사 추천서

### 3. 제출기간: 2011년 11월 30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4. 제출처: 갈릴레아 선교 공동체

52 Clyde Ave Hopelawn NJ 08861 e-mail: galileag@gmail.com

## 갈릴레아 선교 공동체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 지역에 발송됩니다.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비를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좌초 위기!

## CT, 11월 18일까지 연방 상원에서 인준 받아야

미연방정부독립기관인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가 출범한지 13년 만에 좌초 위기에 빠졌다.

USCIRF는 해마다 지구촌 종교 자유의 현황을 조사하여 종교상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침해하는 특별 감시국가나 감시요망국가들을 선정하여 1988년 제정된 미국국제종교자유법 준수 현황이나 난관을 미 의회

나 국무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그동안 계속해왔다. 그런데 지난 9월, 연방하원에서 391대 21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순항이 예정됐지만, 상원으로 이첩된 인준안이 갑자기 상원에서 의결 거부로 좌초될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름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 상원의원의 투표 거부로 난항에 빠진 동 위원회는 11월 18일까지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해체될 위험성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구촌 종교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1988년 제정된 미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미국 정부 독립기관으로 조직된 동 위원회는 해마다 종교적인 자유를 위반하는 국가들을 조사, 선정해 대통령과 국무부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해당 국가들에 정책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준수시킬 것을 주 업무로 한다. 따라서 이를 받은 국무부와 의회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외교상 혹은 교역상의 불이익과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동 위원회의 재가 인준안은 버지니아 공화당 상원의원(Rep. Frank Wolf)에 의해서 상정됐다. 그는 종교적 자유 신장에 앞장서 온 보수주의자로, 하원에서의 통과를 예측하며 상원에서는 아마도 민주당 소속

통령과 상원 그리고 민주, 공화당 대표의 재가를 받아서 임명된다. 원래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 종교적 자유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The 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IRF). 그런데 US-

##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원칙” 천명 세계 폐쇄국가들에게 개선의 목소리 높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 정부의 외교나 교역 정책을 통해 국제적인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 상원에서는 보통 입법을 고려할 때,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상원의원 누구나 입법 과정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의의가 있거나 저지하고 싶은 의원은 일단 법안의 입법을 유예시키고 자신이 소속한 정당 대표에게 법안에 반대할 의향을 전제 정당 차원에서 법안의 입법을 무산시키게 되는데, 현재 동 위원회의 인준안이 여기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의 상원의원들에 의해서 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원에서 동 위원회의 인준을 호소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종교상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동 위원회의 인준을 정당의 이익을 앞세워 불모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다”면서 정당간의 입장 차이를 떠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원래는 지난 9월 30일까지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의 노력으로 11월 18일까지 시한을 연장시켜 놓았다. 동 위원회는 국무부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연간 3백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에게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명예직이며 대

CIRF는 편제상으로는 국무부 소속이지만 행정상으로는 독립 기관으로, 주어진 임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 지지자들은 바로 국무부 산하에 있는 지구촌 종교 자유의 감시자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미국 정부의 임장과는 상관 없이 종교의 자유를 압제하고 박해하는 국가들에게 비판의 쓴 소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가장 큰 공헌은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간이자 원리인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원칙”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폐쇄된 국가들에게도 천명하고 개선하도록 목소리를 높여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 살 때만 가능!

(1면에서 계속)  
3. 크리스천들이 바로 능력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진리가 논의될 때 강력하며 진리가 보여지면 더욱 강력하게 발현된다. 사람들은 논의 과정에서 이해가 되면 수긍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논의가 진리일 때 얻어지는 혜택들을 직접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한 지역사회에서 크리스천 가정이 본보기로 살아갈 때,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혜택은 직접 그 가정과 밖으로 동시에 주어지게 된다.

만약 병원에서 한 명의 간호사가, 학교에서 한 명의 교사가, 상점이나 공장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단 한명의 크리스천이 제대로 구별되게 살아가면 이를 지켜보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의 진리는 전염되어진다.

크리스천들은 뚜렷한 사람들이다.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된 방법은 바로 새로운 사회의 다른 가치들과 다른 기준들을, 그리고 다른 목적들을 이식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따라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이 이러한 차이들을 보며 그리고 이렇게 구별되고 다른 세것들에 매력을 느끼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는 것을 보는 것이다.

4. 크리스천들은 공동체 유대를 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동체를 통한 능력이란 헌신된 소수의 능력이 다. 아놀드 토인비나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문화나 세상은 창조적 소수자들의 힘에서 발휘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신 분이다. 즉 불과 12명이라는 소수

의 헌신자들 만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셨다. 불과 수 년 만에 이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의에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한 이들은 같이 기도하고 생각하며 원리들을 만들어 가며 지역사회를 위해 같이 사역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가? 새로운 거룩함과 정의, 자유, 그리고 공의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와 진리 능력 안에서, 모델로 살아가며 공동체를 통한 진정한 일치와 유대의 가공할 능력을 재천명하고 믿어야만 한다. 교회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받은 힘을 기출한다면, 지구촌 모든 국가에 교회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 모두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 하나님과 공동체, 이웃의 리듬에 맞추라!

(1면에서 계속)  
1. 하나님의 리듬(Rhythm of Communion)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격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리듬을 듣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보와도 같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2. 공동체의 리듬(Rhythm

of Community)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공동체를 허락하시어 그 안에서 우선적으로 사랑을 연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그룹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세워주는 삶의 리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위해 깊이 생각하고 비전을 나누며 우리의 열정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을 꼭 기억하고 그 분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

3. 이웃의 리듬(Rhythm of Engagement)

하나님과 또 공동체의 리듬에 맞추어 사역적인(Missional)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밖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리듬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 사람들에게는 물론 생소한 리듬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보

지 못한 리듬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면서 한두 번 즈음은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단숨에 우리와 동일한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길 바라만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어 그들이 우리가 듣고 있는 리듬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아닌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보렌 목사는 사역적인(Missional)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체의 지체들 또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담임목사 청빙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KAPC)에 소속된 시카고 근교에 소재하고 있는 헤브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헤브론 교회를 위하여 선택해 놓으신 담임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 자격조건:

- 헤브론의 변치않는 비전을 승계 발전시킬 리더십과 영감있는 복음적 강해 설교의 은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사람으로 목양하실 분
- 정규 대학과 본 교단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 Div 이상)으로 본 교단소속 (KAPC) 이나 혹은 본 교단에 법적으로 가입 하실 수 있는 분
- 한어 및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으로 담임 또는 부목사로 5 년이상 Full Time 목회 경험이 있는 분

### 제출 서류: 1차 기본 서류:

- 본인 이력서 1부 및 사모 이력서 1부
-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1부 (청빙 조건에 대한 의견 포함)
- 자기소개서 1부 (성장과정, 가족사항, 목회동기 및 경력사항 포함)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안수증명서 1부
- 추천서 2부 (목회자2명) - 추천인 연락처 기재 (일부 날인 필수)
- 최근 6개월내 설교 2회본 (CD, DVD 동영상 또는 web address)
- 본인 및 가족 사진 1매 (6개월이내)

### 2차 제출 서류: Email개별 통지자에 한함

- 본인 및 사모 건강 진단서 1부
- 교단 소속 증명서

### 서류 제출 마감일: 2011년 11월 15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출처: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Hebron Presbyterian Church  
P.O Box 7506, Prospect Heights, IL 60070  
이메일: hebronpnc@gmail.com  
(E-Mail 접수를 선호함, 문서는 Word Doc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헤브론 교회

청빙 위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때에 대해서 성경에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소중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그때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거리가 아직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은 어디서 올까요? 첫째는 광야에서 옵니다. 사방에 돌맹이와 모래가 흩날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

나님의 아들이 40일 금식하고 심신이 약해지고 몹시 배가 고프고 길바닥에 다니는 돌맹이 하나도 빵으로 보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을 명하여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근사하겠니"하며 시험이 왔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될 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질 때, 심신이 피곤하고 약해질 때, 먹고 살 것부터 찾아야지, 수단방법 가릴 여유가 없어질 때, 그때 시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홀로 서 있는 예수님처럼 웬지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외롭게 느껴지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 모래만 흩날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시험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시험을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우리 마음에 넣어주지요. 어느 회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에 어느 기독교대학을 졸업한 장로님의 아들이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벤츠 자동차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출근을 하는 날 금식을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갑니다. 회사에 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회사를 유익하게 섬기는 선교사로 근무하게 도와주세요"하고 출근했는데 마침 그날 아침 10시에 차를 많이 팔게 해달라고 고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전 사원들이 죽 둘러서더니 사

장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상 한가운데 입을 벌리고 있는 돼지머리 앞에 나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입사원, 금식하고 출근한 장로님의 아들이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 어떡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습니. 그러자 직속상관이 다가오더니 "뭘해! 빨리 절해야지!" 하고 소리를 치더라. 그러자 "왜 그래?" 하고 물으며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낀 사장님이 또 걸어나오셨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우리 회사를 흥하게 해달라고 절하는 돼지머리인 것을 알지만 전 이 돼지머리에 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흥하기를 바라는 사장님의 마음으로 저도 회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다가와 이 신입사원을 조용히 꺼안더니, "고맙다.

네 믿음을 지켜주어서, 너 같은 신실한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 우리 회사 잘될 것 같다. 나도 교회 집사인데 나이롱 집사야!" 그러시더니 그 뒤로는 다시 고사를 지내는 일이 없더라. 하나님은 사람이야 할 때로 있고 머리 숙여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풀무밭 속에 들어갈지라도 헤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중단을 헤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을 알고 또 믿기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를 신뢰하고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고 자신 있게 시험을 정면 돌파하자! 내가 이길 수 있기에 허락된 시험입니다. 신앙인의 긍지를 가지고 만나는 시험을 이겨 냅시다.

# 푸/ 른/ 초/ 장

정필도 목사 (수영교회 원로목사)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이지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 하며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받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함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이지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 하며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2000년 11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청중은 열렬하게 앙코르를 외치고 4곡이나 더 불렀습니다. 그 래도 청중이 자리를 뜨지 않자 그는 다시 무대에 올라 "제가 오늘 이 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반주도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외교사절단을 비롯한 3,700여명의 청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이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분들에게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고난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이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지금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그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4. 죽으면 다 놓고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깨달음으로 받는 큰 축복입니다.

시편 49:16-20절 말씀처럼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칭찬을 하고 영광이 넘치지만 그가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보고 칭찬하는 그 영광도 그가 죽을 때는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쌓아놓고 살아봤자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쌓아놓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깨달음의 법칙” 마태복음 13장 18-23절

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길가의 밭, 돌밭, 가시 밭, 옥토와 같은 좋은 밭, 이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깨달음의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1.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11장에 다윗이 전쟁이 나가지 않고 궁전에 있다가 범죄 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 하여 내가 여호와와 말씀을 엮인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삼하12:1-9).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의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되기 전에 그는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경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지방여행을 갔다가 허름한 여관에서 잤는데 아침에 보니 구두까지 도둑맞은 일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그가 하나님과 도둑을 원망할 때 여관주인이 구두 한 켤레를 건네주며 "주일이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겨우 교회에 간 그는 환한 얼굴로 기쁨이 넘치게 찬양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 것을 보고 그는 구두가 문제가 아

중은 그 찬송에 감동을 받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삽니다. 이것은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3. 고난당하는 것은 괴롭지만,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된 복이 많음을 깨닫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큰 병에 걸린 것이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 담임목사 청빙

Whichita Baptist Church is looking for pastor who must be a committed follower of Jesus Christ, a person whose life bears testimony of divine calling and gifts for ministry, and one who joyfully accepts his responsibility convinced of God's leadership and the enthusiastic affirmation of the church. He will lead the church in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 Qualifications/Requirements

1. 언어: 이중언어 (영어/ 한국어) 영어로 원활하게 사역이 가능하신 분 (1.5세 한인 회당)
2. 교육배경: 신학대학원 이상
3. 나이: 30세 이상
4. 목회경력: 최소 3-5년 담임목사 경력자
5. Immigration status: 최소 이민법상 Permanent resident 이상 이민 분

###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해당 문서를 첨부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와 3년 이상 아시는 분의 추천서 3통 (include their contacts)
- 개인 소개서: 가정, 성향, 배경, 신앙관, 목회철학, 목회방향, 관심분야, 달란트
- 설교 2회분의 mp3, DVD, CD(택일) 와 해당 설교 노트 또는 프린트물
- 대학/신학원 졸업증
- 연락처법 (전화/주소/Email)
- 운전면허증 복사본
- 이민법상 영주권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tt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Wichita Korean Baptist Church  
9736 Chamberlin  
Wichita, Kansas 67206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kbchurch@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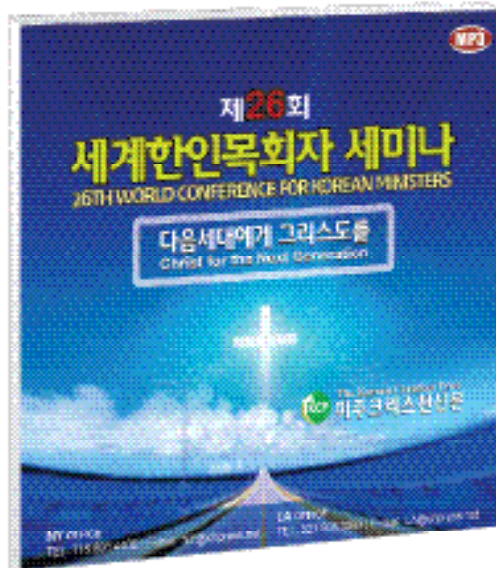
# 위치타 한인 침례교회

http://www.wkbcks.org

##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임받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긴급 담임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켜,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쁜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청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자)와 3회의 저녁임상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홍의명, 여운세, 송광길, 이영섭, 김만형, 김삼덕, 조일규, 홍인기, 송규식, 김희현, 박한남, 김승연, 장영준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71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 교육칼럼

## 주일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세우기(2)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이번 호에서는 교회력에 의한 연간 교육과정 세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 세대는 심한 격정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고 자극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인지, 감각적으로 계절이나 절기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감각적으로 어른들에 비해 사뭇 다른데, 세월도 더디고 한 주간, 한 주간이 새롭고,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며 특별히 절기에 대한 기대와 감동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절기들을 잘 준비해야 하며, 영적인 체험의 기회로 포착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세워야 합니다.

1월은 새해 또는 신년이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1월의 주제를 "새사람을 입자"로 세운다면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변해야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날과 주간과 월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나누어 주셨는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수도 하고

이 될 것입니다.

2월의 주제는 "예수님을 닮자"로 정하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속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학년에 따라 내용의 깊이가 다르겠지만 학생들로부터 신앙성경에서 제자들의 삶을 Research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들을 정리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죄 용서 받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케 해야 합니다.

4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학습활동으로 '계란 찾기'를 하는 것은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물론 학년에 따라 접근 방법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막 부화된 병아리를 학습 자료

## 절기 민감한 아이들 위한 효과적 교육과정 세워야 예수닮는 훈련, 문화적 콘텐츠 개발과 적용에 노력

더러는 실패하게 됩니다. 또는 잘못도 하고 죄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을 한꺼번에 주시고 살아보라고 했다면 실수와 아픔과 지을 수 없는 상처들로 가득 차 인생이 매우 힘들고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한 해를 나누어 주셔서 혹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였을 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학습 자료의 선택과 학습방법을 이와 같이 하면 어떨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색깔이 아주 어두운 도화지나 더럽혀진 도화지를 주고 예쁜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해 봅니다. 예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고, 색상도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 이번에는 깨끗한 하얀 도화지를 나누어주고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회개의 결단과 성령세례에 의한 구속함의 확신까지 갖게 한다면 아주 성공적 교육과정

해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의지적으로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한 리서치(Research)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의 삶과 사랑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발견케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은 기도노트를 작성케 하고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케 한다면 참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루에 한 사람씩 사랑의 대상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게 한다면 사랑의 삶이 생활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복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면 성공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입니다.

3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죄인인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감상케 하고 받은 감동을 글로써 그림으로써 또는 음악으로 표현하도록 한다면 감성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착안입니다. 더불어 무정난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를 생명이 있는 계란과 생명이 없는 계란의 차이에서 찾게 해야 합니다. 하나는 부화된 병아리로 하나는 썩은 계란으로 버려짐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한다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주일과 어머니주일이 있으며 성령강림절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교육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에서 그 가치를 찾게 해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음으로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임을 발견케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요, 약속 있는 계명으로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적합한 교제는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일지라도 자식으로서 부모

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이들로 하여금 발견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조소하고 경솔히 여긴 함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아버지의 실수를 조심스럽게 덮고 아버지께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셈과 야벳에게 주어진 축복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하나님의 법인지를 터득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고통 중에도 어머니에 대하여 효성을 다하셨던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율법으로서만이 아니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고 부모님께 편지쓰기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짧은 기억 속에서나마 자신이 느꼈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이끌어 내면 아주 성공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주일에 대한 교육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출생하였음을 알게 하고 부모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이번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이기풍 목사님의 행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토크쇼에서 이희은

**A:** 제주도 복음화의 선구자인 이기풍 목사(1865-1942)는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마포삼일 목사의 선언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안수받은 일곱 목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회 셋째 날인 9월 19일에 김선주 목사의 사회로 열린 노회에서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제주도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가기로 자願해 윤함에 사모와 함께 1908년에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의 제주도 복음화 사역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통스러웠고 미신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와 윤함애 사모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제주도 주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섬김으로 제주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 이기풍 목사부부의 헌신 사랑으로 제주도 복음화

홍수로 인해 떠내려가는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이기풍 목사는 생명을 내걸고 그 여인을 구한 적도 있었고 산 속 동굴 안 구렁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소녀를 구하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 구렁이를 때려눕힌 일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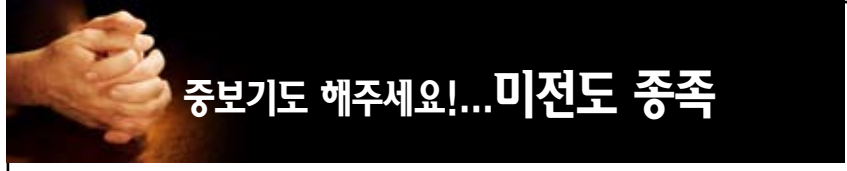
13년 동안의 제주도 사역을 통해 제주도에 미신과 불신의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30여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성공적인 사역 뒤에는 윤함애 사모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와 윤함애 사모는 제주도에서 어두운 밤하늘을 밝힌 두 개의 새벽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주도민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선교와 목회에 승리하였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전 인구의 7-8%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는 250개 정도가 있으며 아직도 미신들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너무나 아름다운 섬으로서 수산물도 풍부하며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중국 선교를 위해 제주도에 중국인 훈련센터를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인 숨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중국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을 이곳에 초청하여 인텐시브로 훈련시키면 좋을 것입니다. 좋은 중국 선교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p><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222-7791, FAX: (02)222-829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532-29</p>	<p><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요 예배: 오후 7:30 TEL: (031)377-6794, FAX: (031)377-6794 군포시 군포동 470-42</p>	<p><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계원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김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광주신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돈돈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로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상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주요 예배: 오후 4:30 (1부예배 4시)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성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사여덴교회</b> 담임목사: 소경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일요일을 위한 헌신예배)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근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권경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인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성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시온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전 5:00(반복)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안암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왕성교회</b> 담임목사: 권자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요 예배: 오후 7:3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주안교회</b>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창주주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박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요 예배: 오후 7:00 www.biblemap.org TEL: (02)372-9929, FAX: (02)372-9779 서울시 중랑구 불광동 339-4 (131-231)</p>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중부 사마(CENTRAL SAMA)**



인 시아시(SIASI SAMA) 사마어는 타우숙(TAUSUK)어와 다른 사마의 언어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사마리는 말은 사마바자우 언어를 쓰는 다양한 부족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중부필리핀

부터 보르네오의 동쪽해안,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 전체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사마족들은 본래 술루 군도와 민다나오섬(MINDANAO) 사이의 해안지역과 섬에 살았다. 역사적인 증거들로 볼 때 사마족은 기원 후 천년이 지나서 동안 그들의 고향을 떠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대부분이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해 술루제도, 카가얀 술루, 보르네오의 동쪽해안을 따라 정착했다. 사마족들은 서로 분산돼 있으며 전체 사마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정치적 단위가 없다. 어떤 사마족들은 그들의

독특한 방언(사투리)에 의해 구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각 부족들이 정착한 섬들을 기준으로 서로를 구분한다.

**삶의 모습**

중부 사마족의 삶은 고기잡이, 항해 그리고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해안을 따라 농사를 짓기도 한다. 술루제도 전역과 동부 사마(SABA)에 이르기까지 코프라(COPRA, 코넛 오일을 생산하는 말린 코넛의 알맹이)가 주요 현금작물이다. 코프라 보유량이 적어 사고팔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야자식물을 가진 가정은 거의 없다.

무역 역시 사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래 전부터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뛰어난 항해기술로 이름을 날렸고, 말린 생선(트레팡:TREPANG 해삼), 진주, 진주껍질 그리고 다른 여러 해산물들의 주요 공

급자로서 역할을 한다. 고기잡이, 조선편, 철 채련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이고 매트를 짜거나 항아리를 파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다.

방어막이 잘 세워진 넓은 해안선을 따라 거주지들이 밀집해 있다. 지면이나 최고수위 표시(WATER MARK)로부터 3m정도 높이에 지어진 집은 보통 부엌이 딸린 한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위에 세워진 각각의 집들은 두꺼운 나무판이나 쪽이 좁은 다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

각 가정은 텀푹(TUMPUK, 집안)이라고 불리는 더 큰 친족단위로 묶는다. 중부 사마족은 가족들과 가까이 살고 친척들과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 텀푹의 대변인으로 선출된다. 또 다른 공동체 단위의 교구는 같은 모스크에 속한 신도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앙**

중부 사마인들은 거의 수니파 무슬림이다. 이만과 모스크관리들과 같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 박식한 이들을 '파키'(PAKI) 혹은 '파킬'(PAKIL)이라고 부른다. 이 파키들은 거의 모든 중요한 의식을 주재하고 종교적인 상담가로 활동하며 감사제와 같은 작은 의례들도 집전한다. 무슬림들의 금요일 기도는 각 교구 모스크에서 수행되며 이날은 한 주내 반복되는 날마다 하는 기도의 절정이 되는 시점이다.

중부사마족의 일부는 살아있지 않은 대상에도 영이 있다고 믿는 정령숭배자들이다. 죽은 자의 영혼은 평상시 주위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런 때로는 영혼들이 제사를 원한다고 여긴 사람들은 이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친다. 어떤 무덤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사반(SHAABAN)의 달 동안에, 신(알라)은 죽은 자들의 영혼(ROH)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을 허용한다고 여긴다. 이때 그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서 사마들은 죽은 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무덤을 깨끗이 청소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1970년대 초 이후 독립투쟁으로 인해 이 지역 원주민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일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대한 민족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많은 살인과 유괴, 필리핀의 군대와 전투를 하고 있다. 그 포악한 독립군들이 진정한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유럽의회 의원들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영국 의회에 이어 유럽연합(EU) 입법부인 유럽의회 소속 의원 4명도 우리나라 여야 4당 대표와 박희태 국회의장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 7월 영국 상·하원 20명은 이같은 서한을 여야 4당 대표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한을 발송한 의원들은 한반도관계대표부 부대표 안나 로스바흐(Anna Rosbach), 한반도대표부 회원이자 인권소위원회 회원인 데이빗 마틴(David Martin), 인권소위원회 회원 리오니다스 돈스키스(Leonidas Donskis)와 아나 마리아 고메즈(Ana Maria Gomes) 등이다.

이들 중 로스바흐 의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EU의회 한반도대표부 부대표 자격으로 남북 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성향이 좌파와 우파를 초월한다는 것. 영국 노동당 출신 마틴 의원과 포르투갈 사회당 출신 고메즈 의원은 좌파 성향으로, 이들은 자카르타 대사 부임 중 동티모르 독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덴마크 유럽보수개혁그룹 소속 로스바흐 의원과 리투아니아 출신 유럽자유민주동맹 돈스키스 의원은 우파 성향이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전체적인 내용에 동의하며, 한국 각 정당들이 이를 법률로 제정하기를 희망하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대사 설립,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인권기록소 설치, 북한 내국군포로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설립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와 남미 지역 의원들도 한국으로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서한을 보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북한반인도범죄절제국연대(ICNK) 측은 밝혔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국회에 북한을 위해 나서달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새다.

**미국교회 십일조, 1960년대 이래 최저치**

미국 교회의 십일조 비율이 1960년대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기독교 리서치 단체인 엠프톰(Empty Tom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미 교인들은 수익의 10%가 아닌 평균 2.38%만을 교회에 헌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8년부터 이어져 온 경제위기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1960년대 이래 최저치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단체는 미전역의 복음주의 교회와 장로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등 주류 개신교단 교회들을 위주로 조사를 벌였다.

한편, 십일조 감소에 따라 교회의 재정 운용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들이 교회 건물 유지나 교역자들과 교인들을 돌보는 데 쓰는 비용은 선교나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약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1960년대 이래로 교회가 내부를 위해 소비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엠프톰의 실비아 론즈발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교인들이 십일조에 충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교회 역시 '주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정부 구호시위에 교회개방 평화시위로**

영국 성공회의 대표적 교회인 성 바울 성당이 '반 일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위기를 교회 개방으로 막았다. 지난 16일 주일 아침 런던의 성 바울 성공회 성당. 조용하던 교회 앞마당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수백 명의 시위대로 소란스러워졌다. 시위대는 얼굴에 마스크를 하거나 깃발을 든 채 '반(反) 정부' '각성'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을 붙잡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대처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성 바울 성당의 집례 프레이저 주임신부가 나섰다. 신부는 시위대가 아닌 경찰을 향해 외쳤다. "시위대는 교회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니다. 교회는 평소 주일 아침이나 다름없이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신부의 이 말에 결국 시위대가 아닌 경찰이 철수해야만 했다.

필리핀뉴스서비스(RNS) 등 외신은 이 같은 16일 당시의 성 바울 성당의 표정을 전하며 "프레이저 신부의 신속한 조치 때문에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프레이저 신부는 "평화로운 진행되는 시위에 경찰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느꼈다"며 "평화 시위는 사람들의 권리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프레이저 신부는 평소에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날 성 바울 성당은 평소 주일과 다름없이 평화롭게 예배를 드렸다. 그 시간 바깥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반정부 구호를 외쳤지만 건물 파괴나 난동 같은 어떤 불법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위대는 성당 축의 배려로 성당 앞마당에 텐트를 친 채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지난 주말 로마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은행이나 가게의 집기, 유리창이 부서지기도 했다.

시위대 중의 한 사람인 영어교사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기초해야 한다. 소수를 대변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분개했다. 봉사기관에서 일하는 한 시위대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 나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이번 경제위기는 도덕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반 일가' 시위에 자극을 받은 영국 시위대는 '런던 증권을 점령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근 며칠간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다. 시위대는 올 크리스마스 때까지 시위를 계속 벌일 예정이다.

성 바울 성당은 17세기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세운 돔 형식의 성당으로 런던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1981년 다이애나 공주가 여기서 결혼예배를 드렸다. 이번에 시위대가 들이닥친 것은 성 바울 성당이 금융가 옆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해럴드 캠퍼, '진짜 휴거' 예언마저 '가짜'**

해럴드 캠퍼가 진짜 휴거일이라고 주장한 10월 21

일도 무사히 지나갔다. 그는 당초 5월 21일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한다고 예언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날은 영적 휴거일이었으며 153일 후인 10월 21일 진짜 눈에 보이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었다.



5월 21일 예언 당시, 추종자들이 휴거를 준비하며 학업과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 자살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돼 큰 사회적 물의를 발생했던 것과 달리 10월 21일 예언 때는 큰 사회적 동요가 없었다. 5월 21일 예언 실패로 인해 추종자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17년 전에는 9월 6일 종말론을 내세웠다가 종말이 이뤄지지 않자 계산 착오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계속 종말을 예언해 성도들이 미혹됨에 따라 미 기독교계는 경계를 요절한 바 있다.

현재 캠퍼는 지난 6월 뇌졸중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 그가 종말론을 퍼뜨려 왔던 패밀리리디오 사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수잔 솔티 여사, 대북 라디오선교 중요성 강조**

미국 디펜스포럼재단 및 북한자유연합 대표이며 제 9회 서울평화상 수상자인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여사가 최근 한국에서 열린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집회에 참가, 북한정권의 현실을 알리고 대북선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솔티 여사는 탐복자 이성민(가명) 씨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상을 전했다. 솔티 여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 엘리트들 중에는 북한 정부와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정일의 사상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기독교의 가르침과 대조하는 것 뿐"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알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확산"이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좀처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독려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p><b>기쁨과 영광교회</b> 담임목사: 권희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일)</p>	<p><b>낙원장로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금요영양회: 오후 6:45</p>	<p><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6:50 금요기도회: 오전 8:00</p>	<p><b>뉴욕복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6:50</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30(토-일)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일)</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p>	<p><b>뉴욕순복음안도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일)</p>	<p><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30</p>	<p><b>뉴욕효산장로교회</b>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후 1:30 6부예배: 오후 3:00 7부예배: 오후 4: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일)</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일)</p>	<p><b>리빙스턴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롱아일랜드청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영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어린양 교회</b> 담임목사: 김수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부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p>	<p><b>주신성교회</b> 담임목사: 김승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8:30</p>	<p><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현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p>	<p><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영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2:30</p>	<p><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14:30</p>	<p><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야아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7:0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b></p>	<p><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40</p>	<p><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8:45</p>	<p><b>브라질 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7:00</p>	<p><b>아르헨티나 재민교회</b> 담임목사: 최광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7:30</p>	<p><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황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7: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8:00(토-일)</p>	<p><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환근 목사 파라과이선교교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1,2,3부 스페인어 예배)</p>



# 종교다원주의 연구 (11)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 불상이 우상 ?

2003년 한국 교육방송(EBS)에서 '텔레라스'(관용)이란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기독교정신을 이념으로 설립된 강남대학교에서 필수교양 과목인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강의하던 한 교수가 불상에 절하는 장면이 방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개신교계의 단군상 훼손사건과 연관이 있다. 그 당시 단군상이 전국적으로 건립되자 이에 흥분한 일부 과격한 기독교인들은 강제 철거를 시도하였다. 이에 기독교안티집단들은 이런 파괴적 행동이 마치 기독교 전체의 모습인 것이라며 여론을 조성하였다. 방송국에서는 당시의 문제를 관용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방송으로 내보내려 한 것 같다.

물론 종교적 문제로 시작된 갈등을 관용이란 해법으로 풀려하였던 방송관계자들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독교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불상에 절을 하는 모습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관용의 전형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의 행동을 우상숭배로 이해한 보수 진영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였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해당 학교당국에게 제반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학교당국은 해당 교수의 강의가 설립이념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그의 재임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재임용에 탈락하자 문제가 확대되었다. 34개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그를 복직을 요

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오랜 시간의 공방 끝에 그는 결국 2010년 9월부터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다. 한 기독교 대학교수의 돌발적 행동은 기독교를 넘어서 한국 종교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반기독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변선회의 사상 계승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학과 선불교를 공부하면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떴다. 기독교는 자신이 세워놓은 틀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였으나, 불교는 모든 세상을 상대적이며 관계적으로 보면서 진정한 진리로 인한 자유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결국 그는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논문을 작성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등학교부터 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신앙을 지녀왔던 그는 결국 불교와 기독교는 같은 구원론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그가 불상에 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관용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찬수 교수의 신학세계에는 지난 두 주에 걸쳐 소개한 변선회 교수의 다원주의신학 사상이 계승되어 흐르고 있다. 이 교수에게 변 교수는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 다리를 놓은 대표적인 신학자일 뿐 아니라, 진보적 기독교의 불교관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2002년 3월에 불교평론에 기고한 '그리스도의 불교이해'라는 글을 통하여 그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변교수보다 좀 더 진보적이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는 이 교수가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에 대한 변 교수의 사상을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변 교수를 이 분야의 선구자로 인정하였다. 비록 그의 사상이 기독교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가 제시한 길을 옳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킨다는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독교와 불교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독교와 불교가 만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기독교는 불교에 의해 변화된 기독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타종교'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동일한 신을 지닌 불교는 기독교의 주인의 위치에 있게 된다. 단지 이 교수는 변 교수가 기독교적인 위치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그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교수는 변 교수의 사상을 전수하지만 그보다 좀 더 불교적 입장에서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인 것이다.

이찬수의 기독교 이해

변선회 교수가 타계한 다음 해인 2006년에 그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유족과 후학들이 마음을 합하여 '변선회 아카이브(archive)'를 세웠다. 변교수의 논문,

되되고 출교 받아 물러나게 된 이유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 남들에 비해 너무 앞섰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그가 잘 소개되지 않았기에 사후이라도 그의 다원주의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교수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왜 변선회 교수보다 더욱 진보적인지 기독교와 불교의 유사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이 교수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인한다. 그가 이해하는 세상의 근본원리에 대한 기독교와 불교의 이해는 인간의 경험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있다. 진리의 형성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피조물 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면에서는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 그러나 신의 고유권한에 의하여 형성된 진리와 그 진리를 수용하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에는 오류가 있다. 그 진리는 종교의 시작인 동시에 궁극적 목표인데, 그것이 이미 인간의 실존 안에 이루어져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천적으로 완성되어 태어남으로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다. 과연 그런가? 이것은 불교적 이해이다. 기독교는 전적 타락과 부패로 인한 치열한 인간의 상태를 중요시한다. 이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진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다.

둘째로, 이 교수는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계시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부인한다. 그는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신적 실재를 알게 된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초월적 신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교수가 제시하는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구속사역이 아니라, (15면으로 계속)

## 이찬수, 변선회 사상 전수해 더 불교적 입장에서 발전시켜 인간 전적부패 부인·'아미타불' 구원관 가져 그리스도 역사성 계시성 부인·육체부활 부인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권영길 주일 10:00: 오전 7:45 주일 2:00: 오전 9:45 주일 3:00: 오전 11:45 주일 4:00: 오후 1:45 주일 5:00: 오후 3:30 주일 6:00: 오후 5:30 주일 7:00: 오후 7:30 주일 8:00: 오후 9:30 주일 9:00: 오후 11:30 주일 10:00: 오후 1:30 주일 11:00: 오후 3:30 주일 12:00: 오후 5:30 주일 13:00: 오후 7:30 주일 14:00: 오후 9:30 주일 15:00: 오후 11:30 주일 16:00: 오후 1:30 주일 17:00: 오후 3:30 주일 18:00: 오후 5:30 주일 19:00: 오후 7:30 주일 20:00: 오후 9:30 주일 21:00: 오후 11:30 주일 22:00: 오후 1:30 주일 23:00: 오후 3:30 주일 24:00: 오후 5:30 주일 25:00: 오후 7:30 주일 26:00: 오후 9:30 주일 27:00: 오후 11:30 주일 28:00: 오후 1:30 주일 29:00: 오후 3:30 주일 30:00: 오후 5:30 주일 31:00: 오후 7:30 주일 32:00: 오후 9:30 주일 33:00: 오후 11:30 주일 34:00: 오후 1:30 주일 35:00: 오후 3:30 주일 36:00: 오후 5:30 주일 37:00: 오후 7:30 주일 38:00: 오후 9:30 주일 39:00: 오후 11:30 주일 40:00: 오후 1:30 주일 41:00: 오후 3:30 주일 42:00: 오후 5:30 주일 43:00: 오후 7:30 주일 44:00: 오후 9:30 주일 45:00: 오후 11:30 주일 46:00: 오후 1:30 주일 47:00: 오후 3:30 주일 48:00: 오후 5:30 주일 49:00: 오후 7:30 주일 50:00: 오후 9:30 주일 51:00: 오후 11:30 주일 52:00: 오후 1:30 주일 53:00: 오후 3:30 주일 54:00: 오후 5:30 주일 55:00: 오후 7:30 주일 56:00: 오후 9:30 주일 57:00: 오후 11:30 주일 58:00: 오후 1:30 주일 59:00: 오후 3:30 주일 60:00: 오후 5:30 주일 61:00: 오후 7:30 주일 62:00: 오후 9:30 주일 63:00: 오후 11:30 주일 64:00: 오후 1:30 주일 65:00: 오후 3:30 주일 66:00: 오후 5:30 주일 67:00: 오후 7:30 주일 68:00: 오후 9:30 주일 69:00: 오후 11:30 주일 70:00: 오후 1:30 주일 71:00: 오후 3:30 주일 72:00: 오후 5:30 주일 73:00: 오후 7:30 주일 74:00: 오후 9:30 주일 75:00: 오후 11:30 주일 76:00: 오후 1:30 주일 77:00: 오후 3:30 주일 78:00: 오후 5:30 주일 79:00: 오후 7:30 주일 80:00: 오후 9:30 주일 81:00: 오후 11:30 주일 82:00: 오후 1:30 주일 83:00: 오후 3:30 주일 84:00: 오후 5:30 주일 85:00: 오후 7:30 주일 86:00: 오후 9:30 주일 87:00: 오후 11:30 주일 88:00: 오후 1:30 주일 89:00: 오후 3:30 주일 90:00: 오후 5:30 주일 91:00: 오후 7:30 주일 92:00: 오후 9:30 주일 93:00: 오후 11:30 주일 94:00: 오후 1:30 주일 95:00: 오후 3:30 주일 96:00: 오후 5:30 주일 97:00: 오후 7:30 주일 98:00: 오후 9:30 주일 99:00: 오후 11:30 주일 100:00: 오후 1:30 주일 101:00: 오후 3:30 주일 102:00: 오후 5:30 주일 103:00: 오후 7:30 주일 104:00: 오후 9:30 주일 105:00: 오후 11:30 주일 106:00: 오후 1:30 주일 107:00: 오후 3:30 주일 108:00: 오후 5:30 주일 109:00: 오후 7:30 주일 110:00: 오후 9:30 주일 111:00: 오후 11:30 주일 112:00: 오후 1:30 주일 113:00: 오후 3:30 주일 114:00: 오후 5:30 주일 115:00: 오후 7:30 주일 116:00: 오후 9:30 주일 117:00: 오후 11:30 주일 118:00: 오후 1:30 주일 119:00: 오후 3:30 주일 120:00: 오후 5:30 주일 121:00: 오후 7:30 주일 122:00: 오후 9:30 주일 123:00: 오후 11:30 주일 124:00: 오후 1:30 주일 125:00: 오후 3:30 주일 126:00: 오후 5:30 주일 127:00: 오후 7:30 주일 128:00: 오후 9:30 주일 129:00: 오후 11:30 주일 130:00: 오후 1:30 주일 131:00: 오후 3:30 주일 132:00: 오후 5:30 주일 133:00: 오후 7:30 주일 134:00: 오후 9:30 주일 135:00: 오후 11:30 주일 136:00: 오후 1:30 주일 137:00: 오후 3:30 주일 138:00: 오후 5:30 주일 139:00: 오후 7:30 주일 140:00: 오후 9:30 주일 141:00: 오후 11:30 주일 142:00: 오후 1:30 주일 143:00: 오후 3:30 주일 144:00: 오후 5:30 주일 145:00: 오후 7:30 주일 146:00: 오후 9:30 주일 147:00: 오후 11:30 주일 148:00: 오후 1:30 주일 149:00: 오후 3:30 주일 150:00: 오후 5:30 주일 151:00: 오후 7:30 주일 152:00: 오후 9:30 주일 153:00: 오후 11:30 주일 154:00: 오후 1:30 주일 155:00: 오후 3:30 주일 156:00: 오후 5:30 주일 157:00: 오후 7:30 주일 158:00: 오후 9:30 주일 159:00: 오후 11:30 주일 160:00: 오후 1:30 주일 161:00: 오후 3:30 주일 162:00: 오후 5:30 주일 163:00: 오후 7:30 주일 164:00: 오후 9:30 주일 165:00: 오후 11:30 주일 166:00: 오후 1:30 주일 167:00: 오후 3:30 주일 168:00: 오후 5:30 주일 169:00: 오후 7:30 주일 170:00: 오후 9:30 주일 171:00: 오후 11:30 주일 172:00: 오후 1:30 주일 173:00: 오후 3:30 주일 174:00: 오후 5:30 주일 175:00: 오후 7:30 주일 176:00: 오후 9:30 주일 177:00: 오후 11:30 주일 178:00: 오후 1:30 주일 179:00: 오후 3:30 주일 180:00: 오후 5:30 주일 181:00: 오후 7:30 주일 182:00: 오후 9:30 주일 183:00: 오후 11:30 주일 184:00: 오후 1:30 주일 185:00: 오후 3:30 주일 186:00: 오후 5:30 주일 187:00: 오후 7:30 주일 188:00: 오후 9:30 주일 189:00: 오후 11:30 주일 190:00: 오후 1:30 주일 191:00: 오후 3:30 주일 192:00: 오후 5:30 주일 193:00: 오후 7:30 주일 194:00: 오후 9:30 주일 195:00: 오후 11:30 주일 196:00: 오후 1:30 주일 197:00: 오후 3:30 주일 198:00: 오후 5:30 주일 199:00: 오후 7:30 주일 200:00: 오후 9:30 주일 201:00: 오후 11:30 주일 202:00: 오후 1:30 주일 203:00: 오후 3:30 주일 204:00: 오후 5:30 주일 205:00: 오후 7:30 주일 206:00: 오후 9:30 주일 207:00: 오후 11:30 주일 208:00: 오후 1:30 주일 209:00: 오후 3:30 주일 210:00: 오후 5:30 주일 211:00: 오후 7:30 주일 212:00: 오후 9:30 주일 213:00: 오후 11:30 주일 214:00: 오후 1:30 주일 215:00: 오후 3:30 주일 216:00: 오후 5:30 주일 217:00: 오후 7:30 주일 218:00: 오후 9:30 주일 219:00: 오후 11:30 주일 220:00: 오후 1:30 주일 221:00: 오후 3:30 주일 222:00: 오후 5:30 주일 223:00: 오후 7:30 주일 224:00: 오후 9:30 주일 225:00: 오후 11:30 주일 226:00: 오후 1:30 주일 227:00: 오후 3:30 주일 228:00: 오후 5:30 주일 229:00: 오후 7:30 주일 230:00: 오후 9:30 주일 231:00: 오후 11:30 주일 232:00: 오후 1:30 주일 233:00: 오후 3:30 주일 234:00: 오후 5:30 주일 235:00: 오후 7:30 주일 236:00: 오후 9:30 주일 237:00: 오후 11:30 주일 238:00: 오후 1:30 주일 239:00: 오후 3:30 주일 240:00: 오후 5:30 주일 241:00: 오후 7:30 주일 242:00: 오후 9:30 주일 243:00: 오후 11:30 주일 244:00: 오후 1:30 주일 245:00: 오후 3:30 주일 246:00: 오후 5:30 주일 247:00: 오후 7:30 주일 248:00: 오후 9:30 주일 249:00: 오후 11:30 주일 250:00: 오후 1:30 주일 251:00: 오후 3:30 주일 252:00: 오후 5:30 주일 253:00: 오후 7:30 주일 254:00: 오후 9:30 주일 255:00: 오후 11:30 주일 256:00: 오후 1:30 주일 257:00: 오후 3:30 주일 258:00: 오후 5:30 주일 259:00: 오후 7:30 주일 260:00: 오후 9:30 주일 261:00: 오후 11:30 주일 262:00: 오후 1:30 주일 263:00: 오후 3:30 주일 264:00: 오후 5:30 주일 265:00: 오후 7:30 주일 266:00: 오후 9:30 주일 267:00: 오후 11:30 주일 268:00: 오후 1:30 주일 269:00: 오후 3:30 주일 270:00: 오후 5:30 주일 271:00: 오후 7:30 주일 272:00: 오후 9:30 주일 273:00: 오후 11:30 주일 274:00: 오후 1:30 주일 275:00: 오후 3:30 주일 276:00: 오후 5:30 주일 277:00: 오후 7:30 주일 278:00: 오후 9:30 주일 279:00: 오후 11:30 주일 280:00: 오후 1:30 주일 281:00: 오후 3:30 주일 282:00: 오후 5:30 주일 283:00: 오후 7:30 주일 284:00: 오후 9:30 주일 285:00: 오후 11:30 주일 286:00: 오후 1:30 주일 287:00: 오후 3:30 주일 288:00: 오후 5:30 주일 289:00: 오후 7:30 주일 290:00: 오후 9:30 주일 291:00: 오후 11:30 주일 292:00: 오후 1:30 주일 293:00: 오후 3:30 주일 294:00: 오후 5:30 주일 295:00: 오후 7:30 주일 296:00: 오후 9:30 주일 297:00: 오후 11:30 주일 298:00: 오후 1:30 주일 299:00: 오후 3:30 주일 300:00: 오후 5:30 주일 301:00: 오후 7:30 주일 302:00: 오후 9:30 주일 303:00: 오후 11:30 주일 304:00: 오후 1:30 주일 305:00: 오후 3:30 주일 306:00: 오후 5:30 주일 307:00: 오후 7:30 주일 308:00: 오후 9:30 주일 309:00: 오후 11:30 주일 310:00: 오후 1:30 주일 311:00: 오후 3:30 주일 312:00: 오후 5:30 주일 313:00: 오후 7:30 주일 314:00: 오후 9:30 주일 315:00: 오후 11:30 주일 316:00: 오후 1:30 주일 317:00: 오후 3:30 주일 318:00: 오후 5:30 주일 319:00: 오후 7:30 주일 320:00: 오후 9:30 주일 321:00: 오후 11:30 주일 322:00: 오후 1:30 주일 323:00: 오후 3:30 주일 324:00: 오후 5:30 주일 325:00: 오후 7:30 주일 326:00: 오후 9:30 주일 327:00: 오후 11:30 주일 328:00: 오후 1:30 주일 329:00: 오후 3:30 주일 330:00: 오후 5:30 주일 331:00: 오후 7:30 주일 332:00: 오후 9:30 주일 333:00: 오후 11:30 주일 334:00: 오후 1:30 주일 335:00: 오후 3:30 주일 336:00: 오후 5:30 주일 337:00: 오후 7:30 주일 338:00: 오후 9:30 주일 339:00: 오후 11:30 주일 340:00: 오후 1:30 주일 341:00: 오후 3:30 주일 342:00: 오후 5:30 주일 343:00: 오후 7:30 주일 344:00: 오후 9:30 주일 345:00: 오후 11:30 주일 346:00: 오후 1:30 주일 347:00: 오후 3:30 주일 348:00: 오후 5:30 주일 349:00: 오후 7:30 주일 350:00: 오후 9:30 주일 351:00: 오후 11:30 주일 352:00: 오후 1:30 주일 353:00: 오후 3:30 주일 354:00: 오후 5:30 주일 355:00: 오후 7:30 주일 356:00: 오후 9:30 주일 357:00: 오후 11:30 주일 358:00: 오후 1:30 주일 359:00: 오후 3:30 주일 360:00: 오후 5:30 주일 361:00: 오후 7:30 주일 362:00: 오후 9:30 주일 363:00: 오후 11:30 주일 364:00: 오후 1:30 주일 365:00: 오후 3:30 주일 366:00: 오후 5:30 주일 367:00: 오후 7:30 주일 368:00: 오후 9:30 주일 369:00: 오후 11:30 주일 370:00: 오후 1:30 주일 371:00: 오후 3:30 주일 372:00: 오후 5:30 주일 373:00: 오후 7:30 주일 374:00: 오후 9:30 주일 375:00: 오후 11:30 주일 376:00: 오후 1:30 주일 377:00: 오후 3:30 주일 378:00: 오후 5:30 주일 379:00: 오후 7:30 주일 380:00: 오후 9:30 주일 381:00: 오후 11:30 주일 382:00: 오후 1:30 주일 383:00: 오후 3:30 주일 384:00: 오후 5:30 주일 385:00: 오후 7:30 주일 386:00: 오후 9:30 주일 387:00: 오후 11:30 주일 388:00: 오후 1:30 주일 389:00: 오후 3:30 주일 390:00: 오후 5:30 주일 391:00: 오후 7:30 주일 392:00: 오후 9:30 주일 393:00: 오후 11:30 주일 394:00: 오후 1:30 주일 395:00: 오후 3:30 주일 396:00: 오후 5:30 주일 397:00: 오후 7:30 주일 398:00: 오후 9:30 주일 399:00: 오후 11:30 주일 400:00: 오후 1:30 주일 401:00: 오후 3:30 주일 402:00: 오후 5:30 주일 403:00: 오후 7:30 주일 404:00: 오후 9:30 주일 405:00: 오후 11:30 주일 406:00: 오후 1:30 주일 407:00: 오후 3:30 주일 408:00: 오후 5:30 주일 409:00: 오후 7:30 주일 410:00: 오후 9:30 주일 411:00: 오후 11:30 주일 412:00: 오후 1:30 주일 413:00: 오후 3:30 주일 414:00: 오후 5:30 주일 415:00: 오후 7:30 주일 416:00: 오후 9:30 주일 417:00: 오후 11:30 주일 418:00: 오후 1:30 주일 419:00: 오후 3:30 주일 420:00: 오후 5:30 주일 421:00: 오후 7:30 주일 422:00: 오후 9:30 주일 423:00: 오후 11:30 주일 424:00: 오후 1:30 주일 425:00: 오후 3:30 주일 426:00: 오후 5:30 주일 427:00: 오후 7:30 주일 428:00: 오후 9:30 주일 429:00: 오후 11:30 주일 430:00: 오후 1:30 주일 431:00: 오후 3:30 주일 432:00: 오후 5:30 주일 433:00: 오후 7:30 주일 434:00: 오후 9:30 주일 435:00: 오후 11:30 주일 436:00: 오후 1:30 주일 437:00: 오후 3:30 주일 438:00: 오후 5:30 주일 439:00: 오후 7:30 주일 440:00: 오후 9:30 주일 441:00: 오후 11:30 주일 442:00: 오후 1:3
--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61.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58:12) : '진화'의 반대는 '창조자 하나님'

한 때 영국은 기독교(성공회)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의 영국은 신도도 거의 없고 예배당도 별로 없다. 6000개 이상의 지역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당들은 특별한 건축 형태 때문에 기념물로 보존되거나 다른 종교의 예배당이 되기도 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변했거나 버려지거나 헐리게 되었다.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예배당들을 보면 박물관, 전시관, 옷 가게, 술파는 가게, 약기점, 문신과 몸에 구멍을 뚫어 고리를 다는 가게, 양복 등반 연습장, 유흥업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다니던 교회의 예배당은 "미션나이트클럽"이란 상호를 달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다.

영국은 찰스 다윈의 나라가 되었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이란 책을 출판한 이후 파스퇴르 등 당대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진화론은 영국과 유럽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렸다. 1900년대 초에 이미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았고 그 결과 다윈은 영국의 위인이 되었다. 그의 몸은 최초의 영어성경(King James Version)을 번역하였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고 그의 초상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10파운드짜리 지폐의 인물이 되었다. 이 진화론의 영향은 실로 대단하여 19세기 위대한 철학자로 알려진 존 스탕턴의 믿음마저도 정복하고 말았다(지금도 '종의 기원' 즉 진화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진화론을 수용한 영국의 교회들은 진화론이 교회를 약화시킬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윈의 무신론적인 진화를 100% 받아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책으로 나온 이론이 '유신론적 진화론(theistic evolution)'이다. 이 창조 이론은 하나님께서 물질과 물리 법칙을 창조하셔서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으로 성경적 창조와 진화론을 타협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했듯이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화론으로 교회가 쇠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은 진화론이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았다. 테네시 주를 비롯하여 몇 개 주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이나 유럽의 지식인들과 교류가 많았던 미국의 신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통하여 진화론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 미국에 스며들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테네시 주의 데이톤에서 진화론을 지지하던 단체들이 고의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쳐 "스코프스 재판"이 열리게 하였다. 이 재판 과정

미국에서도 교회들의 문들이 닫히기 시작하였다. 진화론을 수용한 미국 교회에서는 또 다른 타협된 창조이론인 "점진적 창조론 (progressive creation)"이 등장하였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나 진화의 순서로 수십억 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수행하셨다는 이론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에 비해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역할을 허락 하였다(?). 하지만 이 이론도 유신론적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고생대나 중생대에 죽어 화석으로 발견 되는 동식물들이 사람(아담)도 존재하기 전에 죽었다면 그 죽음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지구에 죽음이 들어왔다(롬5:12)는 성경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된다. 어떤 행태가 되었건 진화론은 사람의 죄와 죽음을 상관없게 만들어 버린다. 결국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필요 없게 된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진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창조나 진화는 현재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 하나쯤으로, 실생활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영생과도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진화도 믿고 예수도 믿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진화를 믿으면 성경을 무시하게 되고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화는 창조자다!

진화는 창조자 하나님을 대신한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에 개가 나타나거나 고양이가 나타나거나 사람이 등장하거나 그 과정을 '진화'가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에서는 '진화'가 '창조자'인 셈이다. 그러므로 '진화'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인 것이다. 결국 진화론은 창조

자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무서운 이론이기 때문에 교회에 치명적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화론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논리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또, 진화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요구하는 "보이는 것(what is seen)은 나타난 것(what was visible)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내용을 부정한다. 진화는 성경이 틀렸다고 말함으로써 성경의 하나님 대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게 한다.

현재 미국의 신앙 기초는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만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신앙의 기초는 창조자인데 진화론이 창조자를 제거하거나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결국 창조자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는 사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들은 동성결혼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 분쟁에서 이기려면 각 크리스천의 토대(창조자와 그 분의 창조)가 먼저 보수되어야 한다. 파괴된 기초나 흔들린 기초를 가지고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 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58:12).

# 성품칼럼 (26)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행복한 기쁨을 만드는 행복대화법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행복한 기쁨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꼬리표를 떼세요! "너 같은 게으름뱅이는 처음 본다." "지리도 못났어. 정말!" "당신이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말한 뒤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 기억하세요?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이런 말들은 당장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어김없이 관계를 일그러뜨리고 만다. 이런 말을 듣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뭐가 잘못되었거나 기적이요.

자녀와 부모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한 대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만드는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대화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이를 무시하거나 나쁘다고 판단해버리는 말을 하기 십상입니다. "넌 언제나 이래." "너무 이기적이어서 탈이야." "그렇게 느려서 언제 성공하려고 그러니?" "늘 그렇지 뭐, 또 그 모 양이니?" 이런 말들, 아이의 생각이나 행동을 단정 지어 꼬리표를 붙여버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상처주어 행복한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꼬리 붙이기를 하기보다 아이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내 아이가 소유한 재능과 장점을 발굴해주는 대화를 훈련해야 합니다. 아이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관찰하며 대화하세요. 이른바 관찰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관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한 행동이 마음에 든다 안든다를 판단하기 전에 관찰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존중이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태도지요.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를 관찰하게 됩니다.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의 상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면 우리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드러난 행동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동기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낌 뒤의 욕구를 찾아 대화하세요. 우리가 자녀와 대화할 때 자주 실수하는 대화방식이 자신의 느낌만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대화는 자칫 자녀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고 억박지르는 대화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대화의 달인은 다른 느낌들을 말하는 자녀의 숨어있는 욕구를 찾아 이해해줌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요청하세요. "또 입던 옷을 침대에 걸쳐 놓았네. 이놈의 버릇은 언제 고칠지 원..." 이렇게 투덜대면서 아이 방을 청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세요. "엄마는 우리 아들이 빨래바구니에 빨래를 끝까지 넣고 싶어요"라고 물론 당장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잔소리로 발전시키기보다 엄마의 숨어있는 욕구를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버릇이 친밀한 관계를 만든데 도움이 됩니다.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아이가 칭찬들을 일을 했을 때는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해!" "아빠는 네가 있어서 살맛이 나는 것 알고 있지?"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이런 칭찬 한마디로 자존감을 키워갑니다. 아이의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면서 칭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서에는 "때에 맞는 말이 은방배에 옥구를 갈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여 마치 보약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이의 성품을 키워주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대화는 무엇보다 은방배에 옥구를 구르듯 맑고 경쾌하게 하며 좋은 기별처럼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대화법은 무엇보다 연습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다채스러운 일입니다.

## 진화론 교육 후 영국 미국 교회 급감 사회문제 만연 교육지책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도 실패



### 진화론과 타협한 창조의 의미

진화론과 타협한 모든 창조론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등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분리하여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제거하게 된다.

은 라디오로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재판이었는데, 지금은 거짓으로 관명된 진화론의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성경의 기적들이 과학(사실)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개진되었다. 이 재판을 계기로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고 크리스천들은 신앙에서 과학을 언급하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공립학교들은 1930년대부터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가르치게 되었고 마침내 1960년대부터는 진화론만 교육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급격히 바뀌게 되었다. 그 세대들이 결혼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이혼이 두 배로 급증하였고 거의 전무였던 낙태도 급격하게 늘어났게 되었다. 진화론만을 교육하지 두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 가장 많은 기독교 인문매체를 가지고 있는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안내

<b>갑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 계기도: 오후 8:00 (월-토)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8:00 새 계기도: 오후 8:30 수일 4부 예배: 오후 11:00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00	<b>풍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 계기도: 오후 8:00 새 계기도: 오후 8:00	<b>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동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목-토)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일 3부 예배: 오후 11:00(목-토) 새 계기도: 오후 8:00	<b>맨 앨 교회</b> 담임목사: 김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4부 예배: 오후 7:30 새 계기도: 오후 8: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8:00 새 계기도: 오후 8:00 새 계기도: 오후 1:30 새 계기도: 오후 1:30(월-토)
<b>볼티모어 교회</b>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일 3부 예배: 오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30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목-토)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수일 4부 예배: 오후 7:30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 계기도: 오후 8:00(월-토)	<b>입킨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 계기도: 오후 8:00 (월-토)	<b>앵커리지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계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11:00 새 계기도: 오후 8:00	<b>엘파스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목-토)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윤진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0 수일 4부 예배: 오후 8:00 새 계기도: 오후 8:00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새 계기도: 오후 8:00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8:00 새 계기도: 오후 8:00 새 계기도: 오후 8:00(월-토)	<b>주 여 수 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 계기도: 오후 8:00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 계기도: 오후 8:00 새 계기도: 오후 8:00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11:00 새 계기도: 오후 7:30 새 계기도: 오후 8:00(월-토)	<b>타코마 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4부 예배: 오후 7:30(목-토)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00 새 계기도: 오후 7:00 새 계기도: 오후 8:00(월-토)
<b>템파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목-토) 수일 3부 예배: 오후 10:5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 예배: 오전 3:00(목-토) 새 계기도: 오후 8:00(월-토)	<b>하트포드재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일 3부 예배: 오후 11:00 수일 4부 예배: 오후 7:45 새 계기도: 오후 8:00(월-토)	<b>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일 3부 예배: 오후 1:30 새 계기도: 오후 7:00 새 계기도: 오후 8:30 (월-토)	<b>아태선교침례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일 3부 예배: 오후 1:30 새 계기도: 오후 7:00 새 계기도: 오후 8:30 (월-토)	<b>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11:00 새 계기도: 오후 7:30 새 계기도: 오후 8:00(월-토)	<b>하와이 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1:00 새 계기도: 오후 8:00(월-토)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1:30(목-토) 수일 4부 예배: 오후 7:00 새 계기도: 오후 7:00 새 계기도: 오후 8:00



#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수호) 출범

##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자매교단...총회장에 이자용 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수호)가 지난 25일 가든스윗호텔에서 36차 정기총회로 갖고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순복음교단으로 출범하고 총회장에 북미총회 증경총회장 이자용 목사(사진)를, 부총회장에 석중규 목사, 최

영우 목사, 이종환 목사를 총무에 김훈목사를 선출했다. 본 총회는 순복음북미총회에서 분리된 총회로 총회의 정통성 역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펼쳐온 성령운동에 중점을 뒀다. 25일 열린 총회는 임원

선출 및 헌법수정 등을 다루었다. 이번에 수정된 조항은 북미총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모체로 해온 것을 북미수호총회에서는 여의도교회와 협력관계로, 선교정책 역시 이영훈 목사가 총재로 있는 순복음세계선교회 총재의 선교정책이 아닌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선교정책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총회역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을 총재로 해온 북



〈박준호 기자〉



‘〈도〉만 하는 바리톤’을 부르며 마지막 부분을 재미있는 동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합창단원들

### LA남성선교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LA남성선교합창단(단장 유창호, 지휘 원영진) 제 2회 정기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의 개회기도로 시작돼 찬양과 말씀으로 이어졌다.

LA남성선교합창단은 ‘우리 주 구원자 예수’를 첫 곡으로 ‘십자가 지신 그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등의 찬양과 ‘그리운 마음’, ‘〈도〉만 하는 바리톤’을 들려주었으며 ‘아침 이슬’을 청중들과 함께 부르며 추억속으로 이끌기도 했다.

한편 소프라노 최정원 씨가 초청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Ah! Je ris’(Opera Faust 중)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이루어가신다,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도 손에 손잡고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며 새 힘 얻어 창조적인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특별히 연주회 중 드러진 헌금은 의료선교를 하고 있는 SAM(대표 박세록 장로)선교회에 전달된다. (이성자 기자)



한국컨티넨탈싱어즈 미주순회공연이 가나안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 “영적으로 회복되는 계기되길” 한국 콘티넨탈싱어즈 미주순회공연

한국 콘티넨탈싱어즈 미주순회공연이 ‘주의 날개아래’라는 주제로 19일 저녁 7시30분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공연에서 ‘주 없이 살수 없네’, ‘영원한 그곳으로’ 등을 불렀으며 ‘Sunday School Rock’이란 곡을 앵콜곡으로 불렀다.

타클라라와 산호세 등 북加州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한국콘티넨탈싱어즈는 20일 오후 7시30분 베델한인교회와 21일 오후 8시 LA 나성영락교회 등에서 공연을 가진 후 24일 한국으로 돌아갔다.

백천성 대표는 “이번 미주순회공연에서 동포들과 함께 예배하며 성도들을 만나 짝지만 삶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번 공연으로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과 신앙에 영향을 주어 영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콘티넨탈싱어즈는 음악으로 복음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1967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 약 20여개국에 팀을 창설한 글로벌 비영리 사역단체이다. 한국콘티넨탈싱어즈는 1989년 창단과 더불어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사랑을 전한다는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22년간 약 1700회의 공연과 한국어 앨범 16장을 발표했다. (박준호 기자)

연세대학교 창립 126주년 기념 제6회 연세대학교 남가주 연세과이어 정기 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세대학교 창립 126주년 기념 제6회 연세대학교 남가주 연세과이어 정기 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 연세대 창립126주년 남가주연세과이어 연주회

남가주연세과이어(단장 이형숙)가 제6회 연세대학교 남가주 연세과이어 정기연주회를 지난 21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취 ‘남촌’, ‘고향의 노래’, ‘내맘의 강물’, ‘울산아가씨’를 불렀다. 또한 5부는 모차르트의 Mass in C Major를 지휘자 이영두 선생의 지휘에 맞춰 불렀다.

연세대학교 창립126주년을 기념하며 연세대학교남가주동문회 주최로 열린 이날 연주회는 합창과 독창 그리고 이중창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1부 합창에서는 ‘My Sweet Lady’, ‘Folk Song Suit’를 이영두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불렀으며 3부 합창에서는 이상은 지휘자에 맞

춰 ‘남촌’, ‘고향의 노래’, ‘내맘의 강물’, ‘울산아가씨’를 불렀다. 또한 5부는 모차르트의 Mass in C Major를 지휘자 이영두 선생의 지휘에 맞춰 불렀다. 이날 매조소프라노 박영경(뉴욕주립대 Stoney Brook University 박사과정)과 테너 이성은(한국국립 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독창과 이중창을 불러 월서연합감리교회를 가득 메운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 미주복음방송 GBC사역자의 밤 성료

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이 지난 3일 미주복음방송공개홀에서 GBC 사역자의 밤을 갖고 60여명의 사역자들이 모여 비전을 나누었다.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중언어 방송 프로그램 개발과 사역자 양성은 물론 영어 FM 채널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신욱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복음방송이 24시간 전파되도록 직, 간접적으로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예수님만 전해오라는 복음의 본질위에 설립된 미주복음방송은 이제, 복음우선 방송으로 영혼구원, 복음의 생활화를 위한 방송으로 가정회복과 복음을 통한 이민사회 변화, 복음 선교를 위한 연합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사역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주복음방송을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한 소개와 방송 프로그램 안내, 부서별 사역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사역자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주를 넘어 지구촌의 디아스포라 한인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신 방송 미디어 기술개발과 지구촌의 한인도시에 GBC 지사를

GBC 미주복음방송은 창사 20여년 만에 자체 스테이션을 구입하고 지난 2월 24일 자정을 기해 24시간 방송을 시작했으며 9월 1일부터는 오랜 기도제목이었던 상업광고 방송을 중단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송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다지고 있다. www.kgbc.com (이성자 기자)



제13회 남가주한인신학교 연합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월드미션대학교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남가주한인신학교 연합 체육대회 종합우승에 월드미션대학교

남가주신학대학협의회가 주최한 제13회 남가주한인신학교 연합체육대회가 22일 Ralph B. Clark Regional Park에서 열려 종합우승에 월드미션대학교, 준우승에 그레이스 미션대학교가 차지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월드미션대학

교, 미주장신대학교, 국제개혁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웨퍼드대학교가 참가해서 축구, 배구, 피구 등의 종목과 가지고 열렸으며 이날 참여한 각 대학 학생들은 애교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기에 임했다. (박준호 기자)

###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모퉁이돌선교회 주최 북한선교세미나

모퉁이돌선교회(대표 이삭 목사)는 북한선교 세미나를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 김담드림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삭 목사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강의

경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한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북한의 김정일이 망명해 찾아올 경우 받아주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주님은 버림받은 자와도 함께 하신 분이요. 따라서 우리역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지만 실제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다 발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난마저 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죽을 후에 가게 될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왕래하면서 접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중국선교를 위해 조순족을 준비시켰고 러시아 등 구소련을 위해 고려인을 준비시켰다. 따라서 북한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북한에 한번이라도 성경을 보낸 적이 있는 자는 손을 들어보라”고 질문을 하고 한명도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이 목사는 “북한에 성경이라도 보내보고 선교가 되고 안되고를 논하길 바란다. 북한에 전해지는 생

이날 세미나는 본선교회 총무인 이반석 목사가 ‘북한 지교회와 살아서 활발히 활동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심주일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으며 각각 질의응답을 받은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생명의 전화 구직문의의 최다 7-9월 122건...침묵전화도 202통

생명의 전화(대표 박다윗 목사)에서 7월-9월까지의 통계를 보내왔다. 지난 3개월간 생명의 전화에 어려움을 호소한 문제를 가운데 구직문의와 정보안내에 대한 전화가 122건으로 최고 수위를 나타내고 있어 현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어려움은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생명의 전화의 존재감을 재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그러나 202통이나 되는 전화는 바로 침묵전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전화를 걸고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전화는 아직도 이 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있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구직문의에 이어 뒤를 잇고 있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호소이며 부부갈등(폭행), 인간관계,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 반면에 생명의 전화에 대한 격려와 감사전화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생명의 전화는 (213)480-0691이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이성자 기자)

##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가주노회 소속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이거나, 교단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목사
2. 이민 목회 경력 3년 이상인 목사(부교역자 경력 포함)
3.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가능하신 분
4. 연령은 39세 -45세 사이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사진 1매
3. 목회비전서
4. 목사안수증명서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6. 목사 2인 추천서
7. 최근 설교 2편 (CD)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출기한:** 2011년 11월 4일 (금)까지

**제출하실 곳:** 청빙위원회 앞  
1821 Alta Vista Place, Camarillo, Ca, 93012  
혹은 E-Mail : ahrfamily1821@aol.com

**문의:** 안동환 장로 (805) 746-1730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 EM 혹은 Youth Pastor

**파트타임 구함**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is looking for a part time EM or Youth Pastor/JDS by Oct. 30, 2011.*

**Qualification(자격):**

정규신학교 재학 혹은 졸업자, 영어 능통

-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with a M. 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Fluent English

**Requirements(요구사항):**

이력서/사진 포함

- Resume(including photo) with personal biography.

**Send to(보내실 곳):**

ocopc@yahoo.com(Rev. Sam Kim)

**Due Day(마감일) : Oct. 30, 2011**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FPC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714)891-2029(CH) (714)614-0513(Pastor Sam Kim's Cell)

##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 동부교계 게시판



## “요셉의 비전 21” 등록시작

21세기 요셉운동(대표회장 나광삼 목사)이 주최하는 제 13회 연례 동부지역 리트릿 “요셉의 비전 21”이 “God Made Me”(창45:8)라는 주제로 열린다. 일시는 12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매릴랜드 엘리콧시티 비전센터. 참가 자격은 17세 이상 남녀 학생 청년으로 회비는 20달러(100달러 주회측 지원). 등록은 이메일(josephvision21@gmail.com)을 원한다.

▲문의: (202)486-4269

## 뉴욕 청소년센터 이사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이사회(이사장 이수일 박사) 정기총회가 11월 7일(월) 오후 7시30분 플라싱 급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주요 의제는 △2010-2011/2011-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안 처리 △신임 대표 이사 및 이사장 선출 △기타(신임 사무총장 소개 포함). 청소년센터는 지난달 30일 실행이사회를 연 바 있다.

▲문의:9718)321-1010

## 제1회 BaM 컨퍼런스

BaM(Business as Mission)가 주최하는 제1회 컨퍼런스가 11월 3일부터 사흘간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3일(목)은 오전 9시부터 목회자들과 평신도리더 및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Pre-conference Leaders' Consultation(이하 LC)을 “비즈니스와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다(한국어). 4(금), 5일(토)은 오후 6시30분부터 비즈니스맨/우먼들을 대상으로 NY Business as Mission Conference를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란 주제로 열린다(한영).

▲문의: mihekim@gmail.com 김미혜 간사



## 퀸즈장로교회 추계대부흥성회 강사 김성천 목사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준 목사) 추계 대부흥성회가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열렸다. 강사 김성천 목사(여수 제일교회 담임·원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저녁과 새벽으로 말씀을 전한 첫날 저녁 “아름다운 자아”(엡2:8-10), 둘째 날 새벽 “아름다운 소망”(시127:3-5), 저녁 “아름다운 여성”(잠30:30-31, 왕하4:8-13), 셋째 날 새벽 “아름다운 남성”(엡5:23-28), 저녁 “아름다운 중년”(시102:1-11, 23-24), 넷째 날 저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삿7:1-8)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아름다운 소망(시127:3-5), 저녁 “아름다운 여성”(잠30:30-31, 왕하4:8-13), 셋째 날 새벽 “아름다운 남성”(엡5:23-28), 저녁 “아름다운 중년”(시102:1-11, 23-24), 넷째 날 저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삿7:1-8)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설립33주년기념 음악회

뉴욕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장재용 목사)가 설립 33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감사예배 및 선교음악회를 열고 감동과 은혜, 선교적인 사명으로의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음악회에는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성가대(지휘 방창섭), 차인홍 교수, 웨퍼드 합창단(지휘: 박요셉)이 출연했다.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제공)

# 새 회장에 양승호 목사, 부회장 김종훈 목사

## 뉴욕교협 제37회 총회 294명 참석... 사상초유 즐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가 제 3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양승호 목사(뉴욕 순복음연합교회 담임), 부회장에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지난 24일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린 총회는 교협 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 등록에 따라 215교회 385명이 등록했으나 당일 목사회원 162명, 평신도회원 142명이 참석해 총 294명 최대인원이 참석하는 관심을 보였다. 또 뉴욕경찰이 회의장에 배치돼 예상된 소란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총회는 1부 예배, 2부 회의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손석완 장로(부회장) 인도로 기도 황규복 장로(이사장), 설교 장영준 목사(증경회장, 퀸즈장로교회 담임), 축도 박희소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준 목사는 로마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 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호1:1-3)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징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호세아서에서 본문은 위로와 격려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1975년 교협 시작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표준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감사보고 직전 김해중 목사가 증경회장단 명의로 된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박희소 목사는 감사보고 이전에 임원선거를 하자고 제의했다. 회원들은 거수로 결정하기를 위해 거수 결과 감사보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고가 그대로 이어졌다.

감사 김명옥 목사는 별지로 준비한 감사보고를 통해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예산 지출(-14,507달러) △감사를 무시한 교만 오만한 행동 △파행운행 결제시스템(선지불 후 결제) △현금 임의보관에 대한 확인 요청 거부 △임원활동비 월1000달러 수령 외 광고수입 4500달러 수령 등을 밝혔다.

또 행정감사로 △이종명 목사의 후보탈락 △9월23일 정회장 후보자 격 철회 △사전등록 공고 철회 관례대로 선거권 부여 △총회통과 개정 법안을 실행위에서 통과 △감사교회 교인들과 언론에 불법감사 유로 감사 명예훼손 등을 밝혔으나 행정감사는 감사 권한 외로 회원자격으로 발할 것을 요구한 유상열 법규위원장의 유권해석으로 중지됐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이어진 임원선거는 열린 분위기 속에서 기호1번 양승호 목사, 기호2번 노기송 목사(뉴욕에루살렘교회 담임)의 3분 소견발표 후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총대 279명은 교협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4개의 투표소에서 일렬로 서서 투표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3차 투표에서 양승호 목사가 140표, 노기송 목사가 130표를 얻어 박빙의 차로 양승호 목사가 회장에 당선됐다.

양승호 목사는 인사말에서 “박빙의 차로 당선된 것은 더 겸손히 섬기라는 뜻으로 알고 140표 지지자들만 생각지 않고 130표의 의견도 잊지 않겠다”며 “소통에 역점을 두고 교계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원교회 권익보호와 미자립교회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며 교협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임원선임을 빨리 하겠다”고 말하고 “끝까지 선전한 노기송 목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영훈 총장 초청 뉴욕교계지도자회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제시 19일 한영훈 총장 초청 뉴욕교계지도자회 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가 주최한 한영훈 총장(한영신학교) 초청 뉴욕교계지도자회 기도회가 지난 19일 플라싱 대동연회장서 열렸다. 이날 강연 후 목회자자녀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한 총장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올바르게 진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6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중형교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보화를 활용한 전도 운동과 선교전략 셋째, 목회자의 재교육 넷째, 성장이나 성숙이나 다섯째, 한국교회의 세계화 여섯째 교회 개혁.

한 총장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현대 사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개인교와 교회와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개혁을 시도할 때 한국교회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오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전했다.

강연이 끝난 후 김원기 목사는 24일 총회를 위한 합심기도를 요청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목회자자녀장학금은 할렐루야대회 감사 서임중 목사가 후원한 것으로 10명에게 각 3백달러씩 수여됐다. (유원정 기자)

## NJUCA중고등학교후원회 장학금 5만불 전달

뉴저지 유니타드크리스천아카데미(NJUCA, 교장 Donna Torres, Dawn Fossnes) 후원회(사무총장 스티브정)는 지난 21일 오후 7시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PTA 미팅에서 장학금 5만 달러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NJUCA 중고등학교후원회(영문명 Friends of NJUCA)는 금년까지 여섯 번의 장학금 기부를 통해 지금까지 총 30만 달러의 장학금을 미국인 재학생과 한국 유학생들 중에서 성적 우수자,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해왔다.

미국 동부에서 최초로 한국인 재단(이사장 신정하 박사)이 운영하는 미국 정규사립 중고등학교인 NJUCA는 중부 뉴저지의 아름다운 5만평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학생과 아시아권 유학생 등 총 100여 명의 학생들이 유해환경이 전혀 없는 전원 캠퍼스 속에서 기도와 목상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

지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이 균형 잡힌 전인격적인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지향하는 개교 7년째인 NJUCA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이 명문대학에 다수 진학하고 있으며 최근 이사장 신정하 박사의 두 번째 저술인 “하나님의 학교” 출판을 계기로 기독교 믿음과 학문적 실력을 겸비한 우수 인재 배출을 위한 2014년 개교 10주년 기념 학교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소수정예의 명문 기독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609)713-0300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NJUCA)

www.chungang.org.ar

# 담임목사청빙공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중남미노회 소속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50세 이상 목회경력 5년 이상(합동)
- 한국총신대학원 졸업자
- 아르헨티나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

### 제출서류

- 대학, 대학원졸업증명서
- 목사안수증명서
- 현 소속 증명서
- 설교 Tape, CD, DVD 등 2편
- 2분의 목사 추천서 (추천자 사인과 밀봉 된 것)
- 이력서(사진포함)
- 목회비전

## 접수마감일 2011년 10월 31일 까지

### 서류제출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아르헨티나중앙교회  
 CASTANARES 1435. Cap. Fed. Buenos Aires, Argentina (CP1406)  
 TEL. (5411)4921-9395 / 0509, E-mail: carla7030@hotmail.co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청빙위원회



#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작은교회 목회자자녀장학금 마련 20명에 각 500달러씩 신청마감 10월31일

목사장로부부 찬양단(단장 김영대 목사)이 작은 교회 목회자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을 위해 음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기적인 연주회를 개최해왔던 목사장로부부 찬양단은 금년 제4회째 열리는 정기 연주회를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돕는 장학금 기금 모금 연주회로 열기로 했다.

연주회는 오는 11월 27일(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는데 우선 이번 연주회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20명의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연주회를 앞두고 10월 31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20명에게 각각 500달러씩의 장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작은교회 목회자 자녀장학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앞줄 가운데가 단장인 김영대 목사)

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남가주 지역 건전한 교단의 목회자(목사, 전도사)자녀이며 1가정 1자녀, 현재 6학년에서 대

학 4학년까지 재학생에 한하며 신청서는 www.pecpc.com에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학생

증 복사본, 재학생증서,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3주간의 출석교회 주보 등을 1329 S. Harvard Bl., #1. LA CA 90006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본 찬양단은 장학기금 마련에 협력하기 원하는 단체 및 교회들을 찾고 있다.

김영대 목사는 "장학기금마련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장학기금모금을 위해 동참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명을 훨씬 초과하여 장학금지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사장로부부 찬양단은 약 6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월요일 저녁 나성영락교회 은혜관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지휘는 전중재 교수, 반주는 헬렌박 선생이 맡고 있다.

목사장로부부 찬양단 문의전화는 (213)703-5726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울림선교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

울림선교합창단(총지휘 이수진) 제 5회 정기연주회가 30일(주) 오후 6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된다. 음악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1990년 창단된 울림선교합창단은 작은 교회나 교계행사를 도우며 활동해오다 잠시 공백기를 지나 2006년 새롭게 재 창단되어 올해로 5번째 정기연주회를 갖게 됐다.

▲문의: (213)663-5183

## 어린이전도협회 성탄절 교사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오는 11월 12일(토) 세계 아가페선교교회(933 S. Lake St. LA, CA 90006)에서 성탄절 교사강습회를 실시한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실시되는 본 강습회에서는 찬송, 율동 학교를 겸해 실시하고 성탄절은 물론, 주일학교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제공하게 된다. 등록비 50달러.

▲문의: (213)382-1544

## KAM코랄 제6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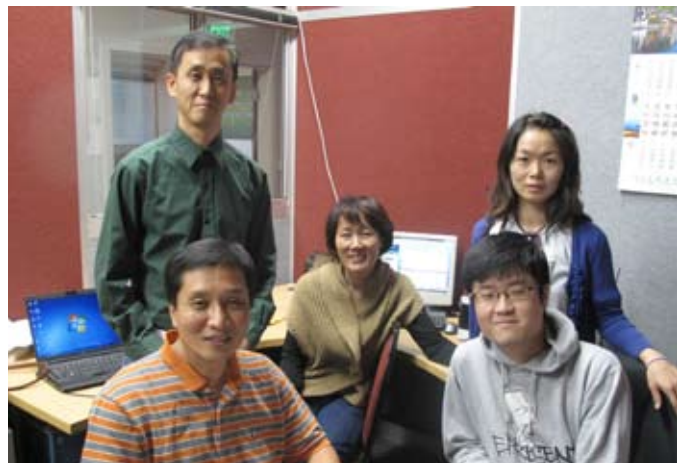
KAM코랄(Korea American Master Chorale, 지휘 이수정)은 제 6회 정기연주회를 11월 6일(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224-9999, 514-9906

## 오렌지한인교회 설립35주년 기념음악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김윤진 목사)는 교회설립 35주년 기념음악회 '모짜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30일(주) 오후 7시에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황혜경, 알토 정혜숙, 테너 전승철, 베이스 장상근이 본 교회 성가대원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또한 소노로스 중창단이 찬조 출연한다.

▲문의: (714)871-8320



제14차 실제·영적전쟁사역자 훈련세미나 남가주해오름교회 스태프들



조하문 목사가 남가주주님의교회 찬양콘서트에서 찬양하고있다

## 제14차 실제·영적전쟁사역자 훈련세미나 남가주해오름교회

남가주해오름교회(담임 송주한 목사)는 '사막한 영을 대적하라'(마 10:1)라는 주제로 '제14차 실제·영적전쟁사역자 훈련세미나'를 10월 31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저녁 7시30분에 개최한다.

Holy Touch Ministry(HTM 대표: 송주한 목사)와 호다선교회(대표 여호수아 고)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크리스티나강 목사(풀러신학교 교수), 송주한 목사, 여호수아 고 대표, 변승지 목사, 한경미 간사(전 HIS University 교수) 등 10명이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한다.

송주한 목사는 "미주한인교회 내에서 공감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치유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213)447-4575

(박준호 기자)

## '사랑과 대화가 있는 음악회' 성향 기쁨의교회

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는 '사랑과 대화가 있는 음악회'를 지난 21일 저녁 7시30분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교회 문정란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영안, 문정란, 테너 소병현, 바리톤 장상근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다. 또한 이귀임 권사와 진다래 박루디 학생 등이 찬조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사랑과대화가 있는 음악회를 마치고 출연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가운데가 본교회 담임인 이희문 목사)

## 남가주주님의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조하문 목사 초청 찬양콘서트를 22일과 23일 양일간 저녁 7시 30분에 개최했다.

이날 조하문 목사(생명을사랑하는모임 대표)는 마태복음 19장 22-2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자신의 속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며, "나 자신이 음반을 많이 파는 인기가수였지만 정작 내 삶은 지겨웠다. 매일 양주에 젖어 살았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미 내 삶은 막을 내렸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 각자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콘서트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아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불렀으며 그의 히트곡인 '이밤을 다시 한번'을 마지막 곡으로 부른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설립 2주년이 된 기쁨의교회는 2년간 불신자 80명을 전도하고 결신시켜 성인 150명이 출석하고 있는 건실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본 교회는 2011년 새생명 축제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라는 표어와 '아버지의 기쁨'(눅15:32)이라는 주제로 22일과 23일 양일간 개최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2011 자녀양육 일일 세미나에서 이영숙 박사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 '행복한 성품자로 키우는 자녀양육' 세미나

###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는 2011 자녀양육 일일 세미나를 22일 오후 5시에 이영숙 박사(좋은나부성품학교 대

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감사의 성품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기쁨의 성품으로 나를 사랑하기', '지혜의 성품으로 자녀 훈계하기'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이영숙 박사는 "미주에서 이노베이션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감사하다. 이곳에 와보니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크다. 앞으로 소그룹지도과정 등을 개설하여 이 과정들을 통해 성경적인 자녀양육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http://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한국 핸드폰 빌려주세요** 702.812.4770 Klm Wray  
 눈, 표, 귀, 입이 멀어서 감싸고 손에는 전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임대료 3.00 \$ a day / 3.21 \$/wk  
 39c 공짜!  
 ■ 가격에 인연공영의 50%수은  
 ■ 고급 핸드폰 제공  
 ■ 장기 - 특별 할인  
 ■ 미국 어디나 무료 배달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방  
 2117 W. Olympic Blvd., 2222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213-582-4338 Fax: 213-398-1594  
 크리스마스 기사 워싱턴DC 기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피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턴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회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팩스:  
 전화: @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길자연 대표회장 “한기총 직제 효율화할 것”

## 국민일보 인터뷰서 밝혀...WEA 규모 방대함도 설명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한기총 사태에 대해 “언젠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해명보다는 모든 것을 싸안고 한기총 발전과 부흥을 위해 재정비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배웠고, 보다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기총 정관 등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내 입장에서 정관 개정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사실 직무대행 체제 속에 만들어진 정관 개정안을 살펴

면 한기총의 현실을 모르고 개정된 부분이 군데군데 보인다. 지난 임시 총회에서 총대들이 반발했던 것은 ‘왜 우리는 한기총에 봉사를 많이 했는데 임원 이름에 한 명씩 밖에 없느냐’는 것이었다. 많은 총대들이 정관 개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총 직제에 대해서도 “현재 4국 3부, 총무와 사무총장 직제를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기총은 전체 한국 기독교인들과의 벌어진 간격을 좁히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한기총이 좀더 영적으로 거듭나야겠다”고 말했다.

한기총이 되었다 △사회의 어둠과 그늘진 곳을 찾아가겠다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저치 스테이’의 밀그림을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기총 하부 조직을 확대하며, 통일에 대비해 통일헌금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또 긴박했던 세계복음연맹(WEA) 2014년 총회 유치 과정을 전하면서 “WEA의 방대함과 영향력에 놀랐다”고 밝혔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19일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WEA는 한기총과 더불어 세계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

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한기총에 분란이 발생하자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무산될 위기에까지 직면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대표회장 추인을 받은 뒤 급하게 WEA에 대표를 파견했고, 이후 진지한 토론을 거쳐 2014년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WEA 본부 방문 당시 상황도 전했다. 길 대표회장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WEA 본부를 직접 방문했다”며 “이전까지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가장 큰 단체인 줄 알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WEA의 방대함과 영향력에 놀랐다”고 언급했다.

길 대표회장은 또 다음 달에 제프 터니클리프 WEA 대표를 비롯한 각 대륙 지도자 7-8명이 방한한다며 “그들에게 한국교회를 소개하고, WEA 출정식과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도 말했다.

# “교회 세속화 배경·재정 투명·회개”

##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목회자윤리실천강령 발표

오는 30일 종교개혁주일을 앞두고 목회자들이 윤리실천 강령을 발표했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운 목사) 소속 목회자들은 지난 2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학술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 ‘세상문화 변화에 앞장서는 교회’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목회자들은 이날 강령에서 “한국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발전과 성장을 이뤄왔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신학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종교개혁 494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못지않게 세

속화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목회자의 성경에 대한 무지, 강단의 세속화, 교회의 기업화, 성적 부도덕, 몰신 숭배 등을 한국교회의 위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또 “한국교회 갱신은 목회자 갱신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한 자기 갱신에 부단히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는 오는 2017년 종교개혁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 신앙만이 한국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세울 수 있다는 취지로 올 3월 5일 창립했다.

# 예성 ‘90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

## 발대식 갖고 대대적인 배가운동 펼친다

[미션라이프]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석광근 목사)가 대대적인 전도운동에 돌입했다. 예성은 21일 오전 안양 성결대 80주년기념관에서 ‘90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 발대식을 갖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엔 총회 임원 외에도 각 교회별 목회자, 평신도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전도목표도 세웠다. 31개 지방회 소속 400교회가 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5000명의 결신자를 얻는 것이다. 지난해 전도대회 때는 75개 교회가 참여해 1500여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올해는 참여대상 교회와 결신자 목표를 대폭 늘린 것이다.

석광근 총회장은 발대식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도,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목적도 복음 전도에 있다”며 “나와 남을 살리고 가정과 사회, 민족을 살리는 게 전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총회장은 “전도가 안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예수를 먼저 안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옆 사람에게 전하는 바로 그 순간 복음전도와 부흥, 회복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예성은 이날부터 시작해 내년 4월 8일 부활주일까지 25주 동안 개 교회별로 전도를 실시한다. 지역별 전도대회와 목회자 전도훈련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개교회별 전도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전도를 독려하기 위해 예성 총회본부 내에 전도 상황판도 설치하기로 했다. 전도를 많이 한 교회나 개인에게

는 승합차와 냉장고, 노트북 등 상품도 제공한다.

이번 전도대회 상임총무를 맡은 송용현(예성 국내선교위원회 사무총장) 목사는 “전도대회 실무를 맡기에 앞서 총회장에게 ‘전도대회를 이번 회기에만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했다”며 “이번 전도대회는 각 개인이 새로워지고, 교회와 교단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성은 2020년까지 3000교회 100만 성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최근 몇 년간 활발한 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 “여성목사 안수 반대할 이유가 없다”

## 보수신학 맥 잇는 백석대교수 81명중 79명

보수 신학의 맥을 잇고 있는 백석대 교수들이 “오늘날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여성목사 안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오늘날 교회의 목사직은 제사장이 아니라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의 목양자이자 권위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석학원(설립자 장중현 목사)은 소속 교수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목사가 구약적 제사장이 아니다”에 79명의 학자들이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2명만 ‘아니다’에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석학원은 이날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우선 “상당수 목회자들이 목사직을 구약의 제사장과 유사한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목사는 예베소서 4장 11절에 근거한 직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약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3중직’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목사 개인에게 적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이며 제사 집례와 율법 교육, 재판,

찬양 등을 담당했다”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구약 제사제도를 십자가에서 성취했기에 오늘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수행하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도 허락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신약시대에는 여자가 남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여성 목사 안수 반대 근거로 인용되는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면서 여성은 교회학교 교사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성 교사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여성 목사 안수도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칼뱅의 ‘기독교강요’(4권 15장 21절)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여성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감독 앞에서 여성들이 세례를 집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라며 “남녀 문제를 떠나 이미 세례를 베풀 권한이 있는 감독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평신도가 세례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교수들은 지난달 20일 예정 백석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교회와 선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미혼모 상담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도움도 실질적 차원에서 진전될 것으로 평가했다.

# 안양대 교수·학생 “건학의 근간 훼손” 반발

## 기독교신 계승한 프로그램에 ‘절 수련’ ‘사주 과제물’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안양대학교(총장 김승태)가 타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수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 처한 곳에서 노사갈등·빈부·부정부패 해결에 앞장서자는 기독교 정신을 취지로 1980년대부터 안양대에서 시작한 한구석밝히기운동. 그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리코스(아름다운 리더십 코스)에서 최근 불교의 108배를 변형한 100배를 소개하거나 사주 바오기 과제물을 내는 등 기독교 정신과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프로그램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한구석밝히기운동 모 임원과 안양대 모 임원은 불교계 인사로 당장 보직을 사퇴하고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학교 신학대생 A씨는 “자기를 찾자는 명분 하에 절을 하고 사주를 보는 것은 예장 대신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전을 모태로 성장해 온 안양대는 지금도 신학과 학생들이 예장 대신 소속으로 목사 안수

를 받고 있다.

이 학교 B교수도 지난달 중국 소림사 방장 초청특강을 예로 들며 “이날 행사는 불교의 승려가 불교를 알리고자 진행한 특강이었다”며 “기독교 정신을 전혀 모르는 타종교인을 강사로 불러와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한구석밝히기운동을 훼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교수와 학생들은 지난달부터 ‘불교 프로그램 중단’과 ‘불교계 인사 퇴출’을 요구하며 매일 기도회를 열고 있다. 25일엔 동문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양대 측은 “호흡법, 침묵산행, 죽음체험 등은 국내외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코스 운영은 안양대 교양학부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불교 승려나 선사들이 강사로 참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두 임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불교적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건학정신이 훼손된다는 것은 무리”라며 “안양대는 기독교 관련 행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타종교 관련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성곽 복원사업에 강제수용·이전 위기

## 124년 한국기독교역사 산증인 동대문교회 어디로?

124년의 역사를 간직한 서울 동대문감리교회(동대문교회)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서기종 담임목사 등이 교회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교계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장 신경하 감독)과 타 교단 목회자와 성도 등 약 1600명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동대문교회는 서울시가 2008년부터 ‘도심재창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성곽복원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동대문교회는 서울시에 교회를 매각하고 옮겨야 했다. 그러나 존치를 원하는 일부 성도들이 동대문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유지재단은 지난달 6일 “동대문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와 기본 재산이므로 소유주인 재단 측과도 협상을 했어야 했다”며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강제 수용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회와 재단이 합의를 만들기가 지 일단 보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

다. 그러나 유지재단과 교회 측은 현재까지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동대문교회는 1887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동대문부인진료소의 기도처로 시작됐다. 캐나다 북감리회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진료소 측에서 실무를 보는 형식이었다. 한국 최초로 남녀가 같은 예배실을 사용했으며, 볼드윈 매일여학교를 운영하는 등 여성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계몽 운동,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다. 삼청동교회, 청량리교회, 화양교회 등이 동대문교회에서 분립했다.



1910~1973년 현대식 2층 건물 / 1973년~ 현재의 예배당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외의 등대 주일은 합니다

면허번호: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647-0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면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팔고래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데칼도, 점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world.com

사랑과 믿음이여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동반자 "사랑과 믿음" 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은혜>에서 당신과 함께 할 소중한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은혜결혼기획**

www.truefriend.us

평생이지 바뀔수요. 회원에 가입하시면 신분연령에 관계없이 봉사차원에서 좋은 만남을 주선해 드립니다

email: jamesong7@yahoo.com

43살 초혼이며 교수(Ph.D)임-성실한 신부를 찾습니다

소장 James Song 201-363-0808 201-647-0030  
실장 Kerry Choi 201-470-1498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Yoo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사랑해야 하는 안양대입니다. SBM이 처방을 드립니다.

SBM은 누구를? 1. 불행의 신중요 From Sickness to Faith 2. 신명의 생명의 From Faith to Immortal Life 3. 영생의 희망 From Immortal Life to Eternal Impact

신부(02)2564-3181, Fax. (02)2564-8133 E-mail: sbm01@comnet.com

〈물건〉미주크리스천다이하체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법정인 권터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6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lovely@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 선교도식 카다피 사후 리비아 선교의 전망 “복음의 문 열렸다” 낙관...극단 이슬람세력 발흥 가능성은 경계

[미션라이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사망함에 따라 전 세계 기독교는 리비아 미래에 희망적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발흥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42년간 카다피 철권통치 속에 대다수 리비아 시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시달렸다”며 “이제 리비아 국민은 모든 적대감을 버리고 국가 재건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카다피의 죽음이 리비아를 새로운 국가로 인도하는 안배자가 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시대는 리비아 국민 모두의 복지가 증진될 뿐 아니라 종교적 자유도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터니클리프 대표는 “전 세계 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리비아 과도정부와 국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자”고 밝혔다.

리비아는 카다피의 독재 속에서도 강력한 이슬람 체제를 유지했던 이슬람의 맹주였다. 인구 97%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기독교인(2.64%)과 힌두교인(0.01%) 등 타종교인은 소수였다. 그러나 소수 크리스천들은 카다피 체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세계기도정보(2010)가 기록했다. 국민들의 영적 갈급도 커 다수의 무슬림들이 세속화되고 있었다. 선교 지도자들은 지난 2월 발생한 시민 혁명이 같은 영적 기류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슬람권 선교 관계자들은 카

다피 죽음 이후 미래를 대체로 낙관했다. 재건을 위해 한국교회와 NGO 등이 과감히 나설 것을 제안했다. 재건에는 물질·영적 필요를 포함한다. 이슬람 전 문단체인 A선교회의 경우 중동 선교사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명으로 공백상태가 된 리비아에 들어가 학교와 병원 등을 재건하고 현지인들의 영적 허기를 복음으로 채운다



## 이슬람권 선교사들, 리비아 재건 위해 한국교회와 NGO 기대 공백상태 리비아에 학교, 병원 등 재건, 영적허기는 “복음으로”

는 것이다. 한국프론티어선교회 이현수 대표는 “리비아는 현재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보면 된다”며 “한국교회도 리비아 재건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카다피의 죽음은 외세에 의해 사망한 아라크의 사담 후세인과는 달리 자국민의 손에 의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 여파는 리비아 이슬람 체제 변화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시리아와 예멘, 이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B국의 C선교사도 “지난 2월 시작된 리비아 시민 혁명은 탈종교화 경향 속에서 일어났다”며 “이는 리비아 국민들이 더

이상 이슬람 극단주의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장기적으로는 이슬람 우위 체제는 무너질 조짐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이집트 등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건 속에서 보듯 극단주의의 발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정국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은 “리비아 혁명 속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참여해 자신들의 지분을 요청한 바 있



다”며 “카다피 사후 리비아의 종교적 판도 변화는 가능하지만 민주주의의 체제가 자리를 잡더라도 다수의 이슬람 영향력은 소수 종교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말해 신중론을 폈다.

아프간 기독교공동체 와해될 위기

미국 국무부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 교회와 학교가 없다는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탈레반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파견한 이후, 이곳의 종교 자유 상

황은 악화되어왔다.

기독교인의 박해 상황을 감시하는 한 국제단체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교회가 파괴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공식 교회가 없으며, 탈레반이 집권하던 시대에도 공개된 교회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기독교인과 서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교회와 기독교인 박해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방관과 무대응도 종교 자유 상황이 악화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비록 아프가니스탄에 눈에 보이는 마지막 유적 교회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선택한 이들이 구성된 무형의 기독교 공동체는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람 공화국인 아프가니스탄의 헌법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종교가 이슬람이며,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에 반하는 법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탄압과 차별 그리고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1년 초에도 여러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있으며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있다고 국제 기독교 단체의 관계자는 덧붙였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2,912만 명)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5% 이하이며 기독교인의 수는 15,000명 이하로 기록하고 있다.

밖의 세속적인 프로그램에 비해 수준의 차이가 심하면 동기부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란 우리가 입을 옷과 같아서 불편한 옷, 어울리지 않는 옷은 벗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쳐 보고 실패해도 또 다시 기회를 주고 결국 인정받는 자녀들로 자라 갈 수 있도록 기도와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연락처: (714)699-0210 (계속)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에서 강사들이 손잡고 기도하고 있다

## “Let him return to the Lord”

제 7회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 25민족 800명 참석

미국내 초교과 다민족 국제선교·교회연합체인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가 주최한 제 7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운명 목사, 월넛크릭지아이 엠교회 담임)가 “Let him return to the Lord”(사55:7)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River of Life Church(담임 Tong Liu 목사)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 25여 민족 대표와 성도 800여명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했다.

미국 주류교회를 비롯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러시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필리핀, 인도,아프리카메리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버마, 이란 등 25여 여러 민족대표와 많은 다민족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과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는 Chain Prayer(함심릴레이 기도)에 이어 6개국 선교보고(미국, 중국, 라틴아메리카, 몽골, 이란, 에티오피아)에 이어서 메시지, 패널, 선교찬양 페스티벌을 갖고 미국 내 이반젤리컬교회의 여러 민족들과의 연합과 협력으로 비전 있는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다.

22일 대회는 토마스왕 박사(Founder, The Grea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America, Return to God”의 개회 메시지가 있었다. 왕 박사는 믿음의 건국 정신에서 시작한 미국이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떠난 총체적인 변질된 타락상을 열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여러 민족들의 연합과 화해운동과 각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미국을 다시 회복하자고 역설했다.

특히 중국(World Christian Restaurant ministries), 미국(International Student Ministries)을 비롯한 각 민족들의 다각적인 선교 활동 보고를 통해 여러 민족의 연합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전 있는 선교의 방향을 도전 받게 했다. 또한 산호세와 이스트베이지역을 비롯한 미국 각주의 대학 캠퍼스 선교 활동을 통해 미국 내 다민족 차세대들 향한 선교의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로 여러 민족교회들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선교보고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함께하는 선교, 협력과 연합하는 선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차세대 다민족연합선교의 도전과 가능성도 갖게 했으며, 다민족 2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으로 공감대를 갖고 다민족 차세대의 연합을 이루고자하는 의지를 공감하게 됐다.

패널 이전 미션메시지의 연사로 나온 페이스김 교수(Golden Gate Seminary Intercultural Education 석좌교수)는 복음안의 은혜 속에서 세상의 트랜스폼이 시작될 수 있다(“Grace the world Into Gospel”)고 강조했다.

“Transform the World for Christ” 패널에서는 각 민족대표 7인이 참석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연합된 영적 성장과 회복이 우선 되어져야 됨을 강조하면서 여러 민족의 연합각성을 논의했다.

미션부스에는 OMF, G.I.M, Gideon, Golden Gate Seminary, The Great Commission 등의 20여 선교단체들이 참여했다.

23일 선교축제에서는 Dick Eastman(Founder, Every Home for Christ)의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다함께 대명령을 감당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민족을 위시한 각 민족의 선교 찬양 페스티벌을 가진 후 여러 민족의 연합성가단이 Steve Willhite 목사(Parkhaven교회)의 지휘로 “Amazing Grace”를 부른 후, 2012년 9월 Iran Christian Church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이번 다민족선교대회를 통해 대회장 정운명 목사는 “금년에는 특히 다민족 1세와 2세대들이 연합된 GIM 3개 대회인 윌네이션스연합기도컨퍼런스(년2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를 갖게 됐다”면서 “미국 차세대의 선교도 함께 인식하는 장이 돼 미국내의 다민족의 조화로운 협력과 연합을 통한 성공적인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여러 민족들의 대표와 참석자들도 협력과 연합을 통한 마지막 지상명령(마 28:19-20) 답을 주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장이었음을 발견했다”며 공감했다.

(기사제공: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

(5면에서 계속)

예수님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누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는가? 누가 병 고침을 받았으며,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며, 누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을 보았는가?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 승천하신 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곳이나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물질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며 지와 정과 의를 가지신 인격체임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내 사정을 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 하심을

체험케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임의로 부는 바람에서 나뭇잎의 흔들림을 보고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6월은 미국 안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합니다. 대체로 여름 캠프 또는 VBS를 하게 되는데 보다 집중적으로 여름성경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적 콘텐츠의 개발과 적용에 노력해야 할 것은 교회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 제4차 미주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

# GKYM VISION 2011

“이 시대 젊은이들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는 현장!”  
“더 높은 부르심 앞에 서는 현장!”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4000명

등록방법 : 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등록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 Early Bird : 11월 7일까지 \$160

00:00.05  
00:00.04  
00:00.03  
00:00.02  
00:00.01

(단체 등록시 목회자 할인혜택)

1차 : 11월 30일까지 \$180

2차 : 12월 11일까지 \$200

3차 : 12월 20일까지 \$240

## www.gkymwest.org

Dave Gibbons  
Newsong Church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Francis Chan  
Author of  
Crazy Love

Darryl Smith  
Student Venture

이용규선교사  
Missionary to  
Mongolia

안찬호선교사  
Missionary to  
Kenya

이용희교수  
Esther Prayer  
Movement

한철호선교사  
Mission Korea  
Partners

손인식목사  
Bethel Korean  
Church



### 자세대선교자원개발을 위한 GKYM선교대회후원안내

하나님께서 미주에 청년학생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해 3000명, 올해는 4000명의 청년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선교자원인 이들이 선교대회에 적은 부담으로 참여하도록 개별 등록금 이외에 1인당 70불이 더 필요합니다.

이일을 위해 차세대선교자원을 위한 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세워지도록 1구좌 70불씩 4000구좌가 채워지도록 힘과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이들은 장차 한국 주도의 세계선교의 장을 열어가길 선교세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명예대회장  
대표대회장  
대회장/강사

박희민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손인식목사(베델한인교회)  
고승희목사(아름다운교회)  
김민중목사(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박성준목사(중현선교교회)  
박성준목사(주님세운교회)  
박성준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김지영목사(KCCCUSA)  
김지영목사(글로벌선교교회)  
이성우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Sam Koh 목사(Hillside Ministry of LACPC)  
권태산목사(하나님의 꿈의 교회)  
김정환선교사(SON Ministry)  
박문환목사(아가페선교교회)

한기형감독(나성동산교회)  
신승훈목사(주님의 영광교회)  
이정현목사(드림교회)  
임현주목사(토론토큰빛교회)  
최홍준목사(에브리데이교회)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송병주목사(선한청지기교회)  
이광길교수(폴리선교대학원)  
조현영목사(큰빛감리교회)  
최경목목사(또감사선교교회)

주관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 KCCC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GAP(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 원동선교회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 CGNTV / CTS / KCMUSA / 중앙일보  
한국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미주크리스찬신문 / 크리스찬뉴스위크  
크리스찬투데이 / 기독교일보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vision@gmail.com





#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9)



## 현실적인 이슈/크리스천 리더십의 개발과 훈련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 중 그들이 이 사회에서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슈 (Issue of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교육하는 일의 중요성과,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를 고취시키고 개발시키고 훈련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5단계 소그룹 리더십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5단계 중에서 1단계(소명훈련), 2단계(신앙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내면화), 3단계(소통을 위한 폭넓은 식견의 함양), 그리고 4단계(다양한 리더십 기술들의 습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5단계 소그룹 리더십 교육"의 그 마지막 단계는 우리 친구들이 앞선 단계들에서 익히고 훈련받은 바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통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들의 소그룹 훈련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지식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리더십에 관해 여러 가지를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그 익히고 배운 바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초점을 우리의 주리 안에서 우리의 주리 밖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즉 우리의 작은 공동체뿐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가슴에 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이 마지막 단계의 리더십 훈련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또 관계하고 있는 더 넓은 공동체들

### 이웃 공동체들에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 봉사하는 훈련 내면화된 신앙과 윤리 전하고 또다른 리더를 세우도록

에 대한 "봉사(service)"의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준비된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의 이해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미래의 일터에서 진정한 리더들로서 행동하고 그 속한 공동체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더하여 더 큰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는 일까지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리더십 훈련자체가 자칫 자공동체 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훈련하고 익힌 바들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봉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친구들을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들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사역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더십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 공동체들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진실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내면화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내면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 내면화된 것을 실제로 실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큰 이웃 공동체들을 향해 섬기는 자들로서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 그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요구

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에 떠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질적 구제를 구상할는지 또는 양로원, 고아원 등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도시 빈민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에서 가르친다든지, "키친 슝" 등의 이미 마련된 구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혹은 이미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구축된 기아 및 난민 돕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실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훈련해야 할 것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의미하는 봉사는 단순히 우리 친구들의 노력 봉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미래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환경에 처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참된 변화를 꿈꾸게 하고 시작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끌게 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전 단계에서 배우고 익힌바들을 더 넓은 공동체들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어느 한 리더십 훈련 소그룹에서 이 마지막 단계의 훈련을 위해 도시빈민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구상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공부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그 곳의 친구들을 그곳의 리더로 세우

는 일을 시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리더로서의 소명의식을 전하고 신앙과 윤리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식견과 리더십의 스킬들을 전하고 다시금 또 다른 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세상을 향한 봉사를 해야 함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더 이상 우리 주리 안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봉사를 추구하는 것이 이 마지막 단계의 훈련 목표라면 그 봉사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 하는 일련의 노력 봉사를 넘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각각의 공동체들에 각각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꿈꾸고 이끌어 나가는 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좀 더 원대한 의미에서의 봉사를 현재뿐 아니라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 꾸준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단단히 교육시키는 것을 이 일련의 리더십 훈련 과정의 마지막으로 장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길러지고 다듬어진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소명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들을 발휘하도록 성장되어서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해 봉사하며 다른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팔로움을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남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계속)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 월 떠나시는 주님 (마9:1-8)

때지때를 손해 본 가다라 주민들이 주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마6:34). 주님은 일언반구 없이 조용히 떠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달리 주님은 백성이 원치 않으면 별주는 대신 스스로 그곳을 떠나시는 온유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일찍이 산상수훈(마7:6)의 교훈대로 은혜와 진리를 거부하는 무지한 자들로부터 머무르지 않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면 인간에

게는 큰 불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난 개인, 가정, 교회, 국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너무 무지하고 완악해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늘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 화 마태의 전도 (마9:9-13)

회심하고 주를 영접한 마태가 그 친구들을 불러모아 주와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10절). 그는 세리 동료들과 작별하는 의미로 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의미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이는 세리들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이 많아 그리스도께서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사실을 통해서 확인됩니다(마11:19).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하심 때문이었습니다(벧전2:9).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 수 인본주의적 금욕주의 (마9:14-17)

금식의 궁극적 목적은 육체의 탐심을 죽이고 죄를 회개해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금식으로 없애려는 인본적인 금욕주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위배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에게가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인간의 욕구를 모두 약한 것으로 여기고 억누르려고 하는 금식은 주의 뜻과 어긋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행

위를 '세상의 초동학문'이라고 부릅니다(골2:20). 이와 같은 것으로는 죄와 욕구를 없앨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골2:21,22). 주님은 금식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을 좇아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기독교적 금욕의 방법이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생활이 곧 모든 더러운 욕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 목 구원의 확신 (마9:18-26)

20, 21절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리스도 몰래 그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내용입니다. 혈루증이란 하혈을 계속하는 몸질 병입니다. 이런 여인이 자기를 만지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도 예수님은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가를 만진 사람이 아닙니다. 혈루증보다 더 부정함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을

으로 섬취하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장된 것이요 성령의 세례로 확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지니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겉옷 정도를 스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금 사랑의 표현 (마9:27-34)

주님은 특히 앞 못보는 소경들을 치유하실 때 더욱 세심한 정성과 방법을 쓰셨습니다(29절). 침을 뱉어 진흙을 그 눈에 붙이는 방법까지 쓰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낫다', '치료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눈을 볼 수 없는 자들이기에 일반인과는 다른 세심한 사랑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우는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

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베풀 때 성도는 세심하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모멸감이나 수치심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행해야 마땅합니다. 불쌍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사입니다(히13:6).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주는 과정도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 토 하나님의 일꾼 (마9:35-38)

37절은 그리스도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하시며 천국사역의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지만 정작 그분과 같이 사역하는 일꾼은 열두 제자와 70여 명이 전부였습니다(마10:5, 눅10:1,2).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표적행하는 것을 구경하고 병고침 받고자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꾼은 적고 관망하는 관람객들만 넘쳐나는 형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수준의 표시입니다. 또 열심히 그 맡은 직분에 수고하는 성도에게는 사단이 시험할 틈도 없습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성도만이 천국의 풍성한 상급을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7면에서 계속)

그의 제자들이 이해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제자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후에 구속의 죽음을 죽게 되었다는 견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 교수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매여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출처가 된다고 주장한다. "가령 서기 70년경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서는 예수를 보지 못한 후대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의 육체성에 집착하던 것을 반영하여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전한다." 예수에 대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기에는 육체라는 제한적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따라 초형상적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로서 그리스도가 '영적인 몸'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재탄생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교수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함 안에 갇혀진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의 구원관은 다원주의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이 교수

는 기독교가 불교와 상통하는 신앙 구조를 가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미타불을 거론한다. '아미타불'이란 부다가 도달한 '무한한 빛'이란 뜻인데,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표현 형식'에 불과하다.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만난다면 바로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 혹은 신앙적 깊이에서인 것이다.'

과연 그의 주장과 같이 기독교와 불교가 각각 제시하는 길의 종착지가 동일할까? 우리는 이찬수 교수를 통해 변신한 교수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 2012년 달력·다이어리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 다이어리

맞춤제작  
최저가격 보장

###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감감하실 수 있습니다.

엘트라프로젝터 샤프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목사, 목사님가운, 성가대, 연금위원, 드레스, 갱장양복

미중동부 기가 워드! 특별행일

엘라성구사

대형드수정김대살

ENAD CRYSTAL PELLET LED LAMP를 설치할 때는 이상을 바라탄의 유해한 02020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5-구입할수록 02020의 유해한 02020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십시오.

Great Design-기타를 제공받으십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시정관물경제 선양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회입니다.

성경, 찬송가, 기도서,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304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213)447-4011



# 인/터/뷰 김호동 목사(불가리아 선교사)

## “내 선교가 아닌 주님의 선교해야”

“선교는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선교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 선교가 아닌 교회를 세워 놓고 그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이는 선교의 방향성이 결여된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지난 13일 코너스톤교회에서 열린 기념식2011 행사를 위해 LA를 방문한 김호동 선교사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불가리아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는 ‘선교는 전체적인 선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988년 천주교중앙교회를 개척하고 1992년까지 개척목회를 하다가 92년 7월 GMS 선교사로 불가리아로 파송이 되었지요. 당시 소피아인간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민목회를 하다가 느낀 것은 선교사가 목회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충분히 펼치는데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민목회와 더불어 94년에 개교한 불가리아개혁장로교신학교에서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면서 느낀 것은 ‘이민목회는 매우 제한적



김호동 선교사와 배점선 사모

선교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선교를 위해 일본어를 공부하던 그가 선교지를 동유럽으로 급전환하게 된 것은 우연히 알게 된 선교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서였다. 당시 강사로부터 동유럽선교를 강조하는 말을 들었던 그는 강사의 말을 의미 있게 듣지 않았다. 그러나 1년 후 비슷한 성격의 세미나에

동 선교사들’이라고 해야 하는데 ‘불리비아와 강호동 선교사들’라고 기도해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불가리아는 웬지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불가리아는 냉전시절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국가이며 공산권 국가이지요. 과거 터키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러시아에 의해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와

교 선교사의 활동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역을 틈만 나면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협박을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테러를 가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외출 중에 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제 짐사짐이 테러리스트들이 휘두른 총매머리 판에 머리를 심하게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그들이 쓴 총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러한 물리적 핍박은 해마다 한 번이상 발생한다고 말했다.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선교지에서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핍박에도 김 선교사 부부는 꺾이지 않고 사역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지금은 그 힘든 여정이 자랑분이 되었던 것이 웃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낸다고 말했다.

그가 20년간 열정과 순종으로 선교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열정보다 순종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간 길을 뒤돌아봤을 때 깨닫게

## 하나님의 사역은 열정보다 순종이 앞서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선교이론보다도 더 정확

인 선교’라는 것이다. 즉 선교는 결국 현지인들에 의해 사역이 진행되어야 하며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양성하고 세워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펼쳐나가 민족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목회로서는 그것을 이루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2005년 4월 한인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현재까지 신학교 사역과 총회세계선교회, 세계선교사협의회, 그리고 유럽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사역으로 동유럽선교를 펼쳐나가고 있다.

그가 불가리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는 많은 여정이 필요했다.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개척사역을 5년간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펼쳐 나갈지 기도를 하던 중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

“선교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어요. 단지 친구가 일본선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에 일본

참석하게 되었고 1년 전 세미나에서 만났던 강사로부터 똑같은 말 즉 동유럽선교에 대한 말을 듣게 되면서 그의 선교의 방향은 일본이 아닌 동유럽으로 수정됐다.

“처음 동유럽 선교에 대해서는 ‘누군가 그곳에 갈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선교를 해야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1년 후 공교롭게 같은 분에게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유럽 선교에 헌신했고 불가리아로 떠나게 되었어요.”

불가리아 하면 장수의 나라 외에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김호동 선교사의 이름 역시 연예인 강호동 씨를 연상케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에 선교보고를 할 때면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불가리아와 김호

동 선교사들’이라고 해야 하는데 ‘불리비아와 강호동 선교사들’라고 기도해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불가리아의 종교현황으로는 개신교회가 2% 이슬람이 13% 불가리아 정교회가 85%이다. 과거 공산주의 치하에서 개신교회의 핍박은 상당했다. 공산치하에도 오순절, 회중교, 침례교, 감리교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흔적만 있었고 활동을 못하고 있었다. 김 선교사 역시 초기 불가리아 선교를 할 때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정확하며 이는 어떠한 선교이론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선교사의 선교, 내 선교가 아닌 주님의 선교를 해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호동 선교사는 부산 장로회 신학교와 홍익대학교 졸업하고 소피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후 2006년 Christian Bible College & Seminary에서 신학교학 박사학위 취득했다. 91년 남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92년 7월 총회 세계선교회 선교사 불가리아에 파송된 후 현재까지 불가리아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배점선 선교사와 아들 김주선이 있다.

연락처: khodongbg@daum.net (박준호 기자)

### 업소 탐방

## 타운에 새롭게 태어난 명소 원 뱅킷 홀 (The One Banquet Hall)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의 장 만들어드려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어찌하다 보니 이 자리에 있네요. 이제 오픈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감사하게도 예약이 이어지고 있어요. 좀 더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부

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이제 막 첫돌을 맞는 어린 딸을 둔 젊은 엄마 유한나 씨. 그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들려준 소감이다. 일찍이 CEO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유한나 씨는 뱅킷홀을 인수하기 전, 유니온웨스턴을 운영했다. 4-5년을 일하다 보니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뎠고 돈이 오가는 일거리에 사람을 대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딸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유아교육, 요리, 네일 등 다른 곳을 보며 돌고리를 찾기도 했다. 유 씨의 원래 전공은 인테리어인데 그와 상관없는 사업을 하거나 회의감도 들게 된 것. 그런 중에 하나님은 유 씨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원뱅크홀을 만나게 하셨다.

뱅크홀의 사장이 된지 얼마 안됐지만 그는 이 일로 인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인테리어 공부를 하면서 올랜드 관광도시에도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LA로 온 것이죠. 이제 뱅킷홀을 운영하면서 전공도 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다 좋은 일로 오시는 거잖아요?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따뜻한 공간이요.”

물론 사업이니까 이익창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따뜻한 이미지를 남기는 행사장으로 만들고 싶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곳 뱅킷홀은 작게는 50명, 크게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결혼식은 물론, 약혼이나 회갑, 돌잔치 장소로 그만이다. “저희가 최소 50명 단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즘 낮 시간대에 20명 정도의 생일파티도 종종 하고 있어요. 소인원일 경우는 장소만 대여하기도 하구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음식포함입니다. 음식도 한식뷔페, 양식뷔페, 양식 등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이쁜 장소, 따뜻한 장소, 행복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젊은 CEO의 바람 속에 따스함이 물씬 풍겼다.

유한나 씨는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유 씨의 어린 시절 믿음의 부친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유 씨에게도 신앙의 공백기가 있었다. 청년기를 지나며 잠시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다. 유 씨가 교회를 다시 찾은 것은 플로리다 유학시절이라고 한다. “외롭잖아요?”라고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유 씨는 “LA에 와서는 아는 언니가 교회로 인도했어요. 첨엔 야외예배에 초청을 했죠. 맛있는 음식 먹으러가자고요...(웃음)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저를 인도한 언니가 1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저를 픽업하고 인도해주었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아직 믿음이 없다고 겸손히 말하는 유 씨. 그러나 지금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 속에 젊은 CEO 유 씨의 말씀에 자라난 하나님의 존재를 엿볼 수 있었다.

원 뱅킷홀은 3680 Wilshire Bl #501(아라마 센터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에 관한 문의는 (213)387-7575하면 되고 www.theonehall.com에서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암초, 불량을-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 나성 복부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헬로십 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 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베델한국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 한국교회, 베버리 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름다운교회, 성림한국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시온연합감리교회, 아버지마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열반인 침례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예수교교회, 은혜평안교회, 은혜한국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디니아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Nc, ITMC, PGM, ENJOY&TV, HK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 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률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마진 없는 **호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송**: 남가주 전역(\$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설교 등을 원본만 보내 주시면 편집, 제작, 복제, 포지 디자인에서 패키지까지 헐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단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망)**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봉사가 부족한 교회에** 안정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개별 인크 절약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서플라이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경쟁기준 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에러율 및 고정밀도  
ILY Enterprise사 제품  
- 캘리포니아 현지생산  
- 확실한 품질보증  
- 신속한 A/S 및 회장의 조건

**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